

목재도 싸우는 무기다. 목재를 생산하자— 이러한 외침에 제일 먼저  
응하여 일어난 것이 이 마을이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의 덕수의 그 노력을 골수에 맺혀 잊지 않는 마을  
사람들은 한 그루 비이면 두 그루, 세 그루 심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  
는다.

송림 사이에 세워진 덕수의 송덕비— 얼마 전까지도 그것은 나무에  
가리워 바닷가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푸른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올랐다.

그 주위의 노송들을 모두 베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밑에서는 처음 덕수가 심은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솔들이  
또 몇 년 몇십 년 후의 방풍림이 되고 목재가 되려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  
는 것이다.

—《방송지우》, 1944. 5.

## 붕익<sup>1</sup> 鸞翼

### 1

일— 정찰기가 탐지한 바에 의하면 쿠알라룸푸르에 집결한 일개 중대  
의 적전투기 부대는 남하 중인 우리 지상부대를 기습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를 받고 곧 '적공군기지복멸<sup>2</sup>敵空軍基地覆滅'의 명령은 가토<sup>3</sup>加藤  
부대에 내리었다.

소화 십육 년 십이월 이십이 일, 새벽. 가토 부대가 마래<sup>4</sup>馬來로 진주  
한 후 처음 받는 출동 명령이다.

이리로 기지를 옮긴 이래, 하루도 비바람이 그친 날이 없었다. 줄기  
차게도 쏟아지는 비, 줄기차게도 씻기지 않는 구름. 가토 부대의 용사들  
은 불타는 투지를 억제할 바 없어, 그야말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던 차  
이다.

\* 1. 붕새의 날개. 2. 앞으로 할 큰 사업 또는 계획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3. 비행기.

\*\* '말레이'의 음역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날이요, 이 명령이었다. 적의 제일선기第一線機와 당당 자웅을 결할 수 있는 이날, 이 순간을 위하여 실전보다도 맹렬한 훈련을 쌓아온 것이 아닌가.

“오늘야 설마 적 전투기가 안 나올라구.”

“아무렴. 오늘은 틀림없네. 그저 많이만 나와주었으면…….”

반도 출신의 다케야마武山 중위(구 최명하崔鳴夏)는 빙그레 웃으며 대꾸이다.

“글쎄, 그래야 좀 체중이 내리지. 하하하하.”

하늘도 이들의 장도壯途를 축복함인지 어찌까지의 비바람이 씻은 듯이 개이고, 수평선 위엔 오래간만에 새빨간 해가 불끈 솟아올랐다.

야자수 나무 그늘, 가토 부대 본부 쪽에서 불시에 만세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늘의 행운을 기뻐하는 용사들의 외침이다.

열 시 삼십 분 가토 부대는 용약勇躍 기지 '코타밭'을 출발하였다. 군데군데 단운斷雲이 깔려 있었으나 시계를 가릴 정도는 아니다. 삼천 미터\*\*의 고도로 밀림에 뒤덮인 높은 산을 단숨에 넘었다. 이윽고 산이 차차 알아지더니 멀리 평지가 바라다보인다.

'쿠알라룸푸르'의 상공이었다.

태양을 등지고 제일편대第一編隊가 시가 상공에 돌입하였다. 시야를 넓게 하기 위하여 천개天蓋를 열고 '스위치'를 틀고 사격의 준비를 하였다.

적 비행장은 잠자는 듯 고요하였다. 전후좌우로 색적索敵하였으나 적기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 조각구름.  
\*\* 미터m

“오늘두 또 허탕치나 부다.”

기가 막힌 듯이 한숨을 토하려는 순간, 파리 떼 모양으로 떠올라 오는 '빠파로' 적 전투기의 한 대가 눈에 띄었다.

“옳지, 어서 오너라.”

하나, 둘…… 헤어보니 십오, 육 기가량의 편대이다. 제법 용감하게 가토 부대에게 도전할 작정인 것 같다.

날씬한 우리 '하야부사隼' 전투기에 비해 '빠파로'는 몽툰한 게 둔하게만 생겼다. 짧은 날개와 기수에 십삼 '밀리'와 십이 '밀리'의 기관포를 이리 문씩 장비하고 있고, 좌석을 두개 십삼 '밀리'나 되는 방탄망로에워쌌기 때문에 자중自重만이 이백 '킬로'를 넘는다. 불품만이 그렇게 사나운 게 아니라 실상 육중해서 동작이 민활치를 못했다.

열한 시 사십이 분. 제일편대가 성난 수리같이 적기를 향하여 달려들었다. 절대 유리한 지위에서 필사의 기총탄을 빗발같이 퍼부었다. 순간 불을 토하는 적기. 낙하산 두 개가 흰 꽃송이 모양으로 푸른 하늘 아래에 활짝 피었다.

그러나 적은 우세하다. 단기單機로 급상승을 계속하여 유리한 태세를 취하여 든다. 우상방에 있던 제이편대가 반전反轉하는 동시에 이들 적기 머리 위에 쏜살같이 덮쳤다.

'쿠알라룸푸르' 시가 상공에서 피아彼我 전투기군의 장렬한 공중전이 벌어진 것이다. 주민들은 넋을 잃고 일본 전투기의 과감한 공격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중인衆人 환시지중環視之中에서 일영日英의 항공 결전은 바야흐로 막을 열은 것이었다.

\* 미국제 '버펄로' 전투기.

\*\* 일본어로 매를 뜻하는 '하야부사隼'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일식 전투기를 가리킨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부락장기(部落長機)가 커다랗게 날개를 흔들었다.

“공격 하령.”

고대고대하던 다케야마기는 이것을 보자 곧 포탄 모양으로 앞선 적기를 향하여 덤벼들었다.

무턱대고 쏘아오는 적기 총탄의 화선(火線)이 다케야마기의 동체를 스친다. 그러나 다케야마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적탄을 뚫고 태연 자약하게 접근하여갔다.

다케야마기의 기수에서 기총 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거의 적기와 충돌할 지경으로 접근했을 때였다. 적 조종사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다가가서 비로소 연동기관총의 발사 단추를 누르는 것은 우리 공군의 필살 전법이다.

집을 먹은 적기는 당황해서 몸을 돌이켰다. 그 순간 적기의 복부가 다케야마기의 조준경 정면에 나타났다.

탕탕탕탕…… 그 복판을 향하여 기총탄을 퍼붓고 나서 이탈, 상승.

돌아다보니 연료조\*에 탄환을 맞은 적기는 검은 연기를 토하며 거꾸로 허공을 떨어져 내려간다.

후우— 숨을 내쉬고 나서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왼편으로 선회 중인 적기가 있다.

“발칙한 놈.”

기수를 돌려 대고 다케야마기는 질풍같이 급강하하였다.

“인제두…….”

전투기 대 전투기의 공중전에선 후상방에 자리 잡으면 절대로 유리하다. 지금 다케야마기는 그 절대 유리한 태세로 적기를 향하여 육박하

| \* 연료통.

고 있다.

다케야마기가 아직 한 방도 쏘기 전에 궁지를 탈하려고 적기는 일직선으로 낙하하기 시작하였다. 추락하는 체하고 달아날 작정인 것이다.

그저— 저놈을…… 그 비겁한 행동에 다케야마 중위는 커다란 노여움을 느꼈다. 그러나 문득 저공에서는 단기(單機) 행동을 삼가라는 가토 부대장의 훈계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 넌 요담에 보자.’

맘을 고쳐먹고 색적을 계속하였으나 이미 적기는 보이지 않는다. 주위를 우군기가 떠돌고 있을 뿐이다.

종합 전과, 격추 이십 기. 재공 적기의 거의 전부를 떨어뜨린 셈이다. 그동안이 불과 십 분.

‘쿠알라룸푸르’ 공중전은 순전히 피아 전투기에 의한 대동아전쟁 최초의 공중전이요, 처음으로 만난 적의 집단 세력이라는 점에 그 의의도 있고 특징도 있는 것이다.

이 전투에 의하여 우리나라 신예 전투기 ‘하야부사’의 우수한 성능은 뚜렷이 증명된 것이다. ‘하야부사’에 대한 신뢰나 필승불패의 확신은 적기 격추 수보다도 더욱 큰 정신적 전과였다.

“재미있었지요.”

부대장기 옆으로 바짝 다가와 날으며 다케야마 중위는 이렇게 말하는 듯 심껏 웃어 보였다.

이날 가토 부대는 ‘코타발’로 돌아가지 않고 전진기지 ‘아를스타’ 비행장에 착륙하였다.

이틀 걸러 이십오 일 반공反攻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면순緬甸\* 공군을 격멸하기 위하여 가토 부대는 폭격대와 협동해서 난공蘭貢\*\*에 진공進攻하였다.

면순 공군은 전의가 왕성해서 전투 행동도 상당히 용감하였다. 이날의 전과는 격추 십 기, 다케야마 중위는 공중전에서 미국제 신에기 기총십이 기 장비의 '호카허리케인' 일 기를 떨어뜨렸다.

다음 날 다시 '코타발'로 돌아왔다.

소화 십육 년도 거진 다 저물었다. 그러나 겨우 우기를 벗어난 마래는 북중같이 뜨겁다.

애기愛機를 정비하고 나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케야마 중위가 '피스트'로 돌아오니까 이삼 일 동안의 휴양으로 원기를 회복한 가토 부대의 용사들은 제각기 부채질을 하며 무엇인지 웃고 떠들고 야단이다.

"다케야마, 이리 오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네."

오이즈미大泉 중위가 어린애 모양으로 웃으면서 손짓한다.

"그래, 무슨 얘기가."

다케야마 중위도 따라 빙그레 웃어 보인 후 옆에 와 필쩍 주저앉으며 수건으로 수선스럽게 땀을 씻었다.

"다케야마, 적의 게릴라가 사흘 저녁이나 계속해서 '승게이페타니'\*\*\*에 나타났대."

"홍, 저런 놈들 보게. 아, 그러면서두 여긴 안 온담."

\* 미얀마.

\*\* 랑군Rangoon, 동남아시아 미얀마의 이라와디 강의 삼각주에 있는 항구 도시.

\*\*\* 말라야 케다 주의 지명인 승게이페타니Sungai Petani 를 뜻함.

"전투기가 있으니까 무서운 게로군그래."

"그런 게 아니라네. 여기 왔단 큰일날 줄 뻔히 알구 있거든."

"왜."

"아, 이 사람아, 자네 걸은 막나니가 여기 있는 줄 누가 몰른다던가, 하하하."

와아, 하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그때 안마安間 대위가 뛰어 들어왔다.

"편지 쓸 사람은 편지 쓰게. ×× 참모가 귀환하시는 길에 내지까지 갖다주시겠다네."

그 말이 떨어지자 다케야마 중위는 얼른 웃음을 그치고 잠깐 엄숙한 표정을 지었다.

늙으신 아버지에게 오랫동안 문안조차 드리지 못하였다. 떠나기 전부터 병석에 누워 계신 아버지, 조선은 지금 한창 추울 때다. 더하지나 않으셨을까. 어머니도 무척은 늙으셨을 게다. 고향을 떠난 지 어언간 일 년.

다케야마 중위는 엽서와 연필을 꺼내 들었다.

"遠方之國馬來群島倒着, 每日之出動敵機少少故, 髒肉之嘆也。"

이 간단한 편지가 드디어 고 다케야마 대위\*\*의 절필이 되고 만 것이다.

어느새 땅거미가 기기 시작하였으나 바람은 여전히 한 점도 없다.

뜰 앞 풀숲에서 벌레 소리가 들려온다. 모기 나올 때도 머지않았다.

그믐날도 출동은 없었다. 아침부터 장병이 총출동하여 새해맞이 준비에 분주하였다.

\* "머나먼 나라 말레이 군도에 도착하여 날마다 출동하거늘, 적기가 점점 줄어들기에 공을 세울 기회가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 다케야마 중위는 전사한 뒤 대위로 승격되었다.

설영반<sup>設營班</sup>, 급양반<sup>給養班</sup>의 둘로 나뉘어, 설영반은 '가도마쓰門松'과 '시메나와<sup>往連繩</sup>'를 준비했고 급양반은 식량 조달에 진력했다.

빛나는 전과를 거두고 진중<sup>陣中</sup>에서 맞이하는 신년의 감개는 한층 새롭고 깊다. 모두들 어린애 모양으로 킬킬대며 즐거운 눈치였다.

다케야마 중위는 설영반이었다. 힘 세기는 부대에서 제일이요, 시골 태생이라 새끼를 꿀 줄 알기 때문이다.

야자수 이파리와 대로 만든 '가도마쓰'도 제법 풍치가 있었고, 애기<sup>愛機</sup> 기수에 친 '시메나와'도 제법 그럴듯하다.

급양반이 애써 얻어온 재료로 중국 요리를 만들었다.

제야의 종소리까지는 들을 수 없었으나 오래간만에 부대장 이하 장병이 한자리에 모이어 술잔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다시없이 즐거운 일이었다.

### 3

새해다웁게 떠들고 놀은 것은 겨우 원단 하루뿐이었다.

이 일, 삼 일, 사 일, 계속하여 적기의 야습이 있어 가토 부대에서는 당분간 야간 초계<sup>哨戒</sup>를 실시하기로 되었던 것이다.

개전 벽두에 철저적 타격을 받은 영<sup>英</sup> 공군은 한 걸음 두 걸음씩 마래 하늘에서 쫓기어 신가파<sup>新嘉坡</sup> 주변으로 후퇴를 계속하고 있다.

\* 야외에 천막을 설치함.

\*\* 먹을 것과 입을 것 따위를 대어주며 돌보는 일.

\*\*\* 설날 대문에 장식하는 소나무.

\*\*\*\* 설날 현관 정문이나 부엌 입구 등에 장식하는 금줄.

\*\*\*\*\* '싱가포르'의 음역어.

도처에서 싸울 때마다 패하고 영 공군은 아낌없이 기지를 버리고 달아난다. 서해안의 '이롤스타', '승게이파타니', '아에르타왈', '페낭', 동해안의 '코타발', '타나메라', '환탕'…… 적이 채 물러나기도 전에 우리 항공부대는 용약 전진하여 쫓기는 적을 거둬 때려 부시었다.

신가파 주변으로 쫓겨 들어간 적은 소화 십칠 년<sup>에</sup> 접어들자 거의 매일 저녁 우리 기지를 습격하였다.

대낮에 당당하게 반격할 용기를 가지지 못한 적은 일 기 혹은 삼 기로 몰래 야습을 일삼는 것이다. 일찍이는 저희들의 기지였던 곳이라 몰래 습격하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다.

십이월 말에 구십칠 기이던 신가파의 적 공군은 차차로 증강되어 이즈음에는 백사십 기 내외였다.

우리 지상 부대는 이미 신가파의 다음가는 요충 '쿠알라룸푸르'를 점령하였다. 바야흐로 전투기 부대가 신가파를 칠 때는 다가왔다.

일월 팔 일, 가토 부대에게 '이포'로 전진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헬라' 주<sup>州</sup> '이포'로 전진하는 동시에 십일 일부터 신가파 항공 격멸전의 막을 열 작전이었다.

'이포'로 주력이 집결을 끝마치자 맹렬한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하여 비행장은 한 자 이상이나 침수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초계 비행조차 실시할 수 없었다.

덕택에 십일 일은 온종일 휴양이다. 이동에 피로한 몸을 쉬어, 전력을 기르려는 것이었다.

“오래간만에 적기 구경을 할 참이지.”

“글쎄, 참 얼마 만야.”

천막 위에 야지수 가지를 덮은 '피스트' 안에서 다케야마 중위는 고이즈미小泉 중위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백 사오십 기 있대지.”

“대부분이 전투기래니까 내일은 헐 만허이.”

“헐 만허다뿐야. 내일은 싱가포르 적 공군을 전멸시키구 말지.”

이날의 고이즈미 중위\*의 불타는 투지에는 다케야마 중위도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다케야마 중위는 공연히 맘이 초조하여 말을 끊고 비행장 앞을 가리운 산을 바라보았다. 마래에서는 지극히 드문 바위로만 된 산이다. 한 폭의 남화南畵 모양으로 어슴푸레하게 저물어가는 산은 다케야마 중위에게 문득 고향 선산의 산을 연상시키었다.

그 이튿날 '탱가' 비행장 상공에서 고이즈미 중위는 자폭하고 만 것이다. 다케야마 중위와는 동기요, 무척 가까운 사이였다.

대망의 신가파 제일격의 날은 왔다. 기지는 아직 어두웠다. 군데군데 안개가 끼어 있었다. 그 안개를 뚫고 연달아 폭음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왔다.

비행장 상공에서 집결을 마치고 마침 그곳을 지나는 중폭대重爆隊와 협동하여 가토 부대는 단숨에 '조호르' 정면으로 진입하였다.

굉굉轟轟한 폭음으로 윈 하늘을 뒤덮으며 함대와 같이 돌진하는 중폭대 앞 구름을 등지고 검은 점이 두셋 나타났다. 삼기편대의 적 전투기였다.

우리 편 전투기만 번쩍하면 습도 크게 못 쉬면서도 육중한 중폭대뿐

\* 원문은 '大泉中尉'.

\*\* 소리가 몹시 요란함.

이면 벌 떼같이 덤벼드는 것이 적 전투기였다.

그러나 우리 중폭대는 조금도 방향을 변하지 않고 목표를 향하여 돌진한다. 중경 폭격 이래 수없는 싸움을 싸워온 우리 중폭대는 적 전투기쯤은 문제도 삼지 않는 것이다. '허리케인'이건 '빠파로'건, 전 편대가 강력한 화망火網을 일점에 집중하여 격추擊墜시켜버릴 자신이 있는 것이다.

적기는 서서히 고도를 올리며 공격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중폭대의 기총이 일제히 그쪽을 향하였다.

다음 순간 '허리케인' 일 기가 맹렬한 기세로 중폭대 쪽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맹렬한 기세로 달려든 적기는 그대로 한 바퀴 허공에 원을 그리더니 기수를 떨어뜨린 채 추락하기 시작하였다. 검은 연기를 내뿜고 순식간에 적기의 모양은 구름 밑으로 사라졌다.

“아니, 누가 쏘어?”

중폭대에서는 아직 아무도 방아쇠를 잡아들인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어느 틈에 나타났는지 우리 신예 전투기 '하야부사'가 제비보다도 빠르고 날쌔게 중폭대 옆을 스치고 반전하자 다시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

중폭대의 용사들은 늘 보는 '하야부사'의 묘기이나 새삼스럽게 놀래지 않을 수 없었다.

“가토 부대다.”

“굉장히 빨르군.”

“일격에 격추로군그래. 용허이.”

중폭대에서 이런 말을 속삭이고 있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다케야마

\* 원문은 '추격擊擊'.

중위는 성난 얼굴로 빼안히 앞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색적의 자세였다.

적기 출동은 이, 삼 기뿐이었다. 그래도 오십 기가량의 반격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가토 부대의 용사들은 맥이 풀려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기지에 착륙하자마자 곧 연료를 보급하였다. 즉시 재출동하기 때문이다.

그날로 곧 제이격을 가하여 적이 채 정신을 채리기 전에 적을 철저히 섬멸하는 것은 가토 부대장의 신념적 전법이다.

그러나 제이격 때에도 역시 적의 반격은 없었다. 싸우기 전의 기대가 어그러져 혈기방장한 우리 용사들은 비겁한 적에 대하여 분노를 느낄 지경이었다.

적에게 싸울 의사가 없는 이상 대편대로 적을 철저히 공격하여 정신적으로 압도할 수밖에 도리는 없다.

이리하여 십삼, 십사, 십오,…… 연일연야, 부대 전력으로 출동하여 적의 최후의 근거지를 공격하였다.

신가과의 단말마는 각각으로 다가왔다.

4

우리 항공부대의 계속적 공격을 견딜 길이 없어 신가과 방면에 간혀 있던 적 공군은 잠시 '수마트라'도륙 '파칸벨' 비행장으로 그 일부를 이동시켰다.

이 정보를 접한 가토 부대장은 적이 '게릴라'전을 개시하기 전에 완

전히 이를 집복시켜 신가과의 제공권을 잡으리라 결심하였다.

소화 십칠 년 일월 십칠 일.

아홉 시 이십 분, 중부 마래의 기지 '이포'를 출발한 가토 '하야부사' 전투기는 '수마트라'도륙 '파칸벨' 비행장을 향하여 단숨에 '말라카' 해협을 건넜다.

오늘도 다케야마 중위는 부대장기의 요기(僚機)\*로 출동하였다.

이윽고 적도였다. '하야부사'가 처음으로 적도를 넘어 남반구에 그 빛나는 봉익을 퍼는 것이다.

뜨거운 남국 태양의 직사를 받아 새파랗게 맑은 '말라카' 해는 눈이 부시게 빛난다. 바닷가 붉은 흙은 푸른 바다와 예쁘게 조화되어 한 폭의 그림이었다.

붉은 흙이 끝나는 데서부터 '코코' 야자의 숲이 시작이다. 바다보다도 오히려 넓은 듯한 야자수 숲이 바람에 커다랗게 굽이칠 때마다 흰 일광이 물결같이 너울거렸다.

또 그 속에는 원시시대 그대로의 '정글'이 꺾꺾이 문혀 있어서 소름이 끼치도록 시커먼 그림자가 오직 말없이 깔려 있을 뿐이다. 그 사이를 뚫고 한 줄기 실오라기 모양으로 하얗게 빛나는 것은 강이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내려다보인 것도 잠깐이었다. 적도 근처에서부터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한 적란운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덮어버리고 시계를 가리었다. 더구나 바람까지 일기 시작하였다.

고도를 오천 미로 올렸다. 그래도 구름 위로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전후좌우를 찡찡이 에워싼 것이 구름 구름이다. 시도(視度)는 영(零). 계기

\* 두려워서 굴복함.

\*\* 공중전에서 콧바람 이루어 서로를 엄호해주는 동료기.

하나만을 믿을 수밖에 없다.

다케야마 중위는 부대장기 바른편에 바짝 다가붙었다. 부대장기가 앞서서 날고 있는 한에는 아무런 맹목 비행을 계속해도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필요가 없다.

놀랄 만한 부대장의 항법航法이었다. 어디를 어떻게 날고 있는지 전연 모르고 있어도 부대장기만 따라가면 반드시 적 비행장 상공이었다. 여러 번의 경험으로 다케야마 중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윽고 부대장기가 서쪽으로 전침轉針하였다. 그쪽에 가느다랗게 구름 터진 곳이 있었다.

그 틈으로 부대장기가 쏟아져서 급강하였다. 다케야마 중위도 곧 그 뒤를 따랐다.

과연 목적하던 '파칸빌' 비행장이었다.

혹시 반격하여 오는 적기는 없을까, 해서 약 오 분 동안이나 각층으로 찾아보았으나 적기의 그림자라고는 눈에 띄지를 않는다.

"지상에 있는 놈은 남겨둘 줄 아니."

다케야마 중위의 투혼은 불탔다. 공격 개시를 재촉하는 듯이 부대장기를 바라보았다.

대형기, 뇌격기, 합하야 침수기가 내어버린 듯이 지상에 놓여 있었다.

때는 열한 시 십오 분.

대낮에 공격을 당한 적은 어쩔 줄을 모르는지 고사포高射砲 한 방 놓지를 않는다.

부대장기가 커다랗게 날개를 흔들었다. 공격 하령이다.

앵…… 날카로운 금속성 폭음을 내이면서 '하야부사'의 때는 연달아 땅에 부닥칠 듯이 급강하하더니 제일격을 가하였다.

불길이 솟아올랐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순간 '파칸빌' 비행장

은 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때에서야 겨우 적의 지상 포화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비행장 주위 사방에서 번쩍번쩍 포구砲口가 빛났다. 다음엔 그것이 하늘 높이서 파열한다. 하늘 가까이 면화밭 모양으로 흰 연기 뭉텅이가 짙 깔렸다. 맹렬한 고도각 포탄이었다.

그 탄막을 뚫고 '하야부사'는 거듭 급강하를 계속하며 총화를 퍼붓고는 다시 날아올랐다. 그때마다 지상에서는 새 불길이 뿔쳐오른다.

격파, 염상炎上\* 합하야 육기. 그 밖에 적 군사시설에 큰 손해를 주고 가토 부대는 유유히 기지로 돌아왔다.

미귀환 삼기. 가토육삼六三 중위, 사이토齊藤 조장曹長, 그리고 다케야마 중위가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다쿠와多久和."

부대장은 삼번기의 다쿠와 군조軍曹를 불렀다.

"네."

"다케야마기를 보지 못했다."

"제일격 직후까지는 요기 정위定位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은……."

"그 후에 못 봤단 말이지."

"네."

부대장은 말없이 끄덕이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 \* 불꽃을 뿜으며 타오름.



으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키고 동시에 한 번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남  
아의 기개를 고취하고자 하는 염원이었다.

그런데 그 염원이 다할 때가 왔는데도 이제 와서 용기 없이 무너지는  
것 같은 자신이 싫어졌다. 그러나 둔한 말에 채찍을 내리치고 내리쳐서,  
나는 몸으로 부딪쳐 이 의의 있는 작업과 싸울 각오인 것이다. 거칠게 표  
현하자면, 저 융통성 없이 성실하기만 한 고故 대위가 지하에서 외칠 것  
만 같다.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조선》, 1944. 2.

해설

## 총력전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의 좌표

\_이혜진

### 1. 정인택의 이력

정인택은 1909년 9월 12일 서울 안국정에서 계몽운동가이자 언론가, 정치가였던 정운복鄭雲復과 조성녀趙姓女 사이의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영일迎日 정씨 문정공파文貞公波의 25대 손으로, 포은 정몽주와 송강 정철의 집안이다. 다나카 히데미쓰田中英光의 소설 『취한 배』에서도 정인택은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묘사되고 있다. 정인택을 잉태할 당시 그의 어머니가 태양이 입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다고 해서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태양'으로 불렸다고 한다. 정인택의 순위로는 열다섯 살 터울의 형 정민택鄭民澤과 두 살 위의 누나 정수옥鄭壽玉이 있었으며, 아래로는 세 살 연하의 남동생 정세택鄭世澤과 여덟 살 아래의 여동생 정은택鄭恩澤이 있었다. 손아래 누이는 1923년 정인택이 경성제일고보에 재학하던 시절 어린 나이로 사망했으며, 남동생 역시 정인택보다 앞선 1947년 8월 사망했다.

정인택은 1922년 3월 22일 수하동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4월 22일 명륜정에 있던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중고등학교의 전신)에 입

학하였다. 1920년 아버지가 작고한 이후 정인택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형 정민택은 일본 의대를 졸업한 의사였다. 경성제일고보 재학 시절 정인택의 석차는 입학 초기에는 하위였다가 2학기로 접어들면서 중상위를 유지하는 정도였다. 1학년 때는 박태원과 조용만이 같은 반에 있었는데, 이들은 문학 서클을 통해 문인의 꿈을 나누는 교우관계를 지속하였다. 정인택은 이때부터 독서에 대한 취미를 갖게 되었다고 회고한 바 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위고, 톨스토이, 고리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龍之介)의 작품을 탐독하였으며, 특히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한다.

1927년 3월 25일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를 졸업(제23회)하였다. 학적부의 기록에 따르면 졸업 후의 지망은 '내지 유학'이었지만, 경성고보 졸업 후 그는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곧 경성제대 예과를 중퇴하고, 일본 유학을 꿈꾸며 1931년 동경에 갔음에도 특별한 교육기관에 소속하지 않은 채 있다가 1934년에 귀국하였다. 이후 1936년부터가 정인택의 본격적인 작품 활동기라 할 수 있다. 먼저 그는 1930년 1월 사회주의자의 좌절과 전향을 다룬 「준비」가 《중외일보》(1930. 1. 11~16) 현상공모 2등에 당선되면서 등단하였다. 이때 나이 20세였다. 그 뒤 일본 체류 시절 동경의 풍경을 소재로 한 「동경의 삽화」를 《매일신보(毎日申報)》(1931. 8. 29~9. 11)에 연재하였다. 그 외에 동경 시절을 그린 것으로는 소설 「축루」(《중앙》, 1936. 6), 산문 「후목(朽木) 기타」(《매일신보》, 1940. 2. 8), 「'유미에'론」(《박문》, 1939. 12) 등이 있다. '유미에'는 동경 시절에 만난 친구의 부인으로 정인택의 짝사랑 대상이기도 했는데, 이후 '유미에'의 이미지는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분위기를 지배하게 된다. 정인택의 작품에서 '유미에'는 '나'의 무능력함과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순정으로 '나'를 보살펴주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조락」에서는 '나'

의 곁을 맴도는 순정적인 일본인 여성으로, 「준동」과 「부상관의 봄」(하마에)에서는 하숙집 하녀로, 「미로」에서는 술집 여급으로, 「연련기」에서는 기생(춘홍)으로 등장하면서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준다.

귀국 후 1934년 매일신보사에 입사한 뒤, 정인택은 박태원과 어울려 다니다 이상(李箱)과 교분을 맺게 된다. 이후 1935년 8월 29일 이상이 경영하던 카페(쓰루鶴)의 여급이었던 권영희와 동소문 밖 신흥사에서 결혼하였다. 고향이 청주인 권영희는 1915년 5월 10일 부친 권창식과 모친 김씨 사이에서 외동딸로 태어났으나 부친을 일찍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자랐다. 권영희는 한때 이상과 동거했다 하여 이상의 부인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이상, 정인택, 권영희의 삼각관계 속에서 정인택의 수면제 자살 소동 이후 이상의 사회로 결혼식을 올렸다는 에피소드가 남아 있다.

1936년 봄 아들 태혁이 태어났으나, 3년 후인 1939년 3월 6일 수암(水巖)으로 사망했다. 턱 주변이 썩어가는 아들을 애써 간호하는 이들 부부의 모습은 단편소설 「단장」(《문장》, 1941. 2)에 묘사되어 있다. 그 후 1939년 12월 27일 장녀 태선이 출생하였고, 1942년 10월 18일에는 차녀 태연이, 그리고 1948년 9월 1일에는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정능리 483번지에서 삼녀 태온이 출생하였다.

1939년 5월 정인택은 매일신보사 학예부에서 문장사로 옮기면서 당시 편집장이었던 이태준과 함께 《문장》 편집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준동」(《문장》, 1939. 4), 「미로」(《문장》, 1939. 7), 「동요」(《문장》, 1939. 7) 등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들어갔다. 이상과도 절친했던 정인택은 이들 작품에서 심리주의적 작품의 예술파적 면모도 보였으나, 1941년을 기점으로 체제 협력의 의도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1940년 10월 문장사를 사직하고, 매일신보사에 재입사하여 해방 전까지 재직하게 된다. 매일신보사에 재직하면서 정인택은 본격적으로 일

제의 문예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일제의 식민정책에 부응하는 기획들에 끊임없이 참여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글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정인택은 1941년 여름 낙랑고분군의 발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화가 K와 함께 평양을 기행하였다. 그리고 1942년 6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장혁주, 유치진과 만주 개척민 부락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그에 대한 보고서 성격의 글인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좌담회 전기」(《조광》, 1942. 10)를 발표하였다. 이 글은 6월 5일 오전 만주국 간도성 안도현 영경촌 대사하둔에 도착한 정인택이, 마침 기우제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던 아홉 부락의 부락장을 모아 회담을 연 뒤 돌아와 개척민들의 꾀꿍한 모습에 감탄을 토로하고 고국민들의 격려를 촉구한 것이다.

1942년 10월 정인택은 조선문인협회 문학부 간사로 임명되었다. 1942년 11월 중순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문인협회의 초빙으로 대동아문학자대회에 참석했던 만주, 몽고, 중국 대표 21명을 안내하였다(11. 14). 그해 12월 허순 만주국 간도성의 초빙으로 채만식, 이석훈, 이무영, 정비석과 함께 개척민 부락을 견학하고, 1943년 1월 5일 귀국하여 만주 이민을 독려하는 일련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943년 1월 채만식, 이석훈, 이무영과 함께 '간도 개척촌을 시찰한 작가들의 좌담회'에 참석하여 만주국 간도성 이민부락의 교육상황과 이민정책 및 결혼문제에 대해 토론하였다(「교육열 왕성에 감복」, 《매일신보》, 1943. 1. 10). 같은 해 2월 6일 주요한, 이태준, 김억, 유치환 등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이 개최한 '국어문학총독상'에 대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국어문학총독상'이란 일제가 '반도 문단의 국어학' 촉진을 적극적으로 지도 장려함으로써 문화 지도상의 효과를 위해 제정한 것이다. 이 상은 국민총력조선연맹에서 일본어로 창작한 문예작품 전체에 대해 심사하되, 그중 일본 정신에 입각하여

"민중 계발 선전 효과에 있어서나 예술적 내용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을 한 편 선정하여 부상 일천 원과 함께 수여했다.

1943년 4월 29일 정인택은 반도호텔에서 열린 일본 작가 환영간담회에 참석하였으며, 같은 해 6월 1일에는 조선문인보국회 소설·희곡부 간사에 임명되었다. 1943년 6월 4일에는 조선문인보국회가 개최되어 체신회관에서 열린 '전선시찰 종합좌담회'에 참석하였고, 8월 4일에는 조선문인보국회가 개최되어 부민관에서 열린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선양'을 위한 '낭독과 연극의 밤'에서 콩트를 발표하였으며, 8월 5일에는 문화부문 관계자 미소기(稷) 연성을 위해 홍효민, 조우식, 야마다 에이스케(山田榮助, 나카오中尾清와 함께 외금강으로 파견되어 8월 6일부터 5일간 37명의 일행과 연성회에 참가하여 수련하였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직령의 개현」(《매일신보》, 1943. 2. 28)에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정인택은 1944년 1월 말일을 기한으로 한 조선문인보국회 개최의 '국어창작 결전소설과 희곡 공모'에서 심사위원을 맡았다. 이 현상모집의 취지는 "국체(國體) 본위에 철저히 미영(米英)의 모략을 파쇄하고 국민의 사기를 양양할" 작품을 일본어로 창작케 함으로써 일제의 체제 협력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행사의 심사위원이라는 지위를 고려해본다면 일제 문예정책에서 정인택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같은 해 8월 28일에는 완벽한 전시 보도의 진행을 위해 발족한 '신문 조선군 보도대 보도연습'에도 참가하였다. 또한 11월 17일에는 조선문인보국회에서 선발하는 대동아 교섭 방송 원고에 정인택의 작품이 당선되어 그의 작품이 동경 중앙방송국으로 송달되기도 하였다.

1945년 3월 22일 정인택은 전기소설 「다케야마(武山) 대위」와 창작집 『청량리계외』로 제3회 '국어문학총독상'을 수상하였다. 이로써 정인택은 김용제의 『아세아 시집』과 최재서의 『전환기의 조선문학』에 이어 세 번

째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것이다. 이날 오전 열한 시 총독부 제4회의실에서 거행된 시상식에서 아베(阿部) 정보과장은 민중의 지도 교화에 큰 힘이 되는 문학 부문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정인택의 수상에 대해 “국어 문장을 통해 전쟁문학에 큰 공헌을 했다”라고 치하하였다. 여기서 다케야마 대위란 ‘대동아전쟁’에서 전사한 최초의 조선 출신 육군 비행장교 최명하(崔鳴夏)를 가리킨다. 다케야마 대위가 남방전선인 파칸빌 비행장 공격 도중에 전사함으로써 그의 무훈은 일제에 의해 전쟁 영웅으로 자리매김되고 기념비적 위치에 올랐다. 이후 정인택은 다케야마 대위의 무훈담을 소재로 한 장·단편소설과 수필을 거듭 생산해내기도 했는데, 「다케야마 대위」(《국민총력》, 1944. 1), 『전기소설: 반도의 육취 다케야마 대위(半島の陸鷲 武山大尉)』(매일신보사, 1944. 6), 「봉익」(《조광》, 1944. 6),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ども)」(《조선》, 1944. 2),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ども)」(《국민총력》, 1944. 9)이 그것이다.

1945년 3월 정인택은 동경흥생회(東京興生會)의 초대로 김용제와 함께 약 20일간 일본을 시찰하고 귀국한 뒤, 철저한 공습 대비로 적 격멸에 힘쓸 것을 당부하는 취지의 글 「생사초월 인정의 꽃」(《매일신보》, 1945. 4. 22)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5월 11일 조선문인보국회 소설부회에서는 생산 근로의 각 부문에 중견작가 10명을 파견하여 전쟁 반도의 생생한 모습을 전작 소설로 집필케 한 후 동도(東都) 서적주식회사의 출판으로 ‘결전 문학총서 제1집’을 간행기로 계획했는데 이때 유진오, 조용만, 김사량, 정비석 등과 함께 정인택이 집필 작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같은 해 5월 27일 조선문인보국회가 개최한 ‘낭독 문학의 밤’에서 정인택의 희곡 「빈해의 노래」가 낭독되었고, 8월 1일에는 ‘조선문인보국회 쇼와 20년도 총회’에서 정인택이 소설부 간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렇듯 해방 직전까지 조선문인보국회에 깊이 관여한 정인택이었지만, 해방 직후 그의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해방 이후 이력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47년 1월 한동안 폐간되었다 속간된 《대한독립신문》의 편집국장을 맡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대한독립신문》 사장은 여운형의 동생인 여운홍이었는데,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신문 또한 해방 정국의 분위기에 따른 중도 좌파 성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해 3월 해방 이후 처음 발표한 소설 「황조가」(《백민》, 1947. 3)에서는 다시 내면 심리 묘사에 천착하였다.

1947년 8월 정인택은 《문화일보》 편집부장에 취임하였다. 1948년 10월 금릉도서관에서 단편집 『연련기』를 출판하였으며, 1949년에는 동지사에 근무하면서 동화집 『난쟁이 세 사람』을 발간하였다. 아울러 1949년경 정인택은 과거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다. 이어서 1949년 12월 5일에는 새로 수립된 남한 정부가 문화인들의 단결과 선전을 위해 개최한 종합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북한문화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정인택은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에게 경고」(《서울신문》, 1949. 12. 5)라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 그는 민족정신과 양심을 환기하면서 북한의 문화인들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다.

1950년 정인택은 과거 좌익활동을 하다 전향한 사람들로 구성된 반공단체인 보도연맹에서 근무하였다. 팔봉 김기진의 회고에 따르면, 한국전쟁 당시 정인택은 박영희, 정지용, 김기림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다고 한다. 그 후 전쟁의 동란 중에 정인택은 부인과 세 딸을 데리고 월북했다가 1953년 북에서 사망하였다. 임종 직전 그는 단신으로 월북해 있던 친구 박태원에게 부인 권영희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정인택의 사망 2년 후인 1955년 박태원과 권영희가 재혼하였다.

## 2. 주요 소설 작품의 내용

초기의 습작 시절을 거쳐 본격적인 작품 활동 시기에는 주로 내부의 심리 묘사에 치우치는 경향을 나타내 이상, 최명희, 허준 등의 작품 경향과 동일선상에 놓이면서 룬펜 혹은 모던 보이의 자의식을 그린 작가로 평가되었다. '칠 전짜리 니힐'을 곱씹으며 우미관이나 단성사, 황금구락부 등지로 비극영화를 쫓아다니거나 슬쩍 혼자만의 연애 감정을 느껴보다가도 자존과 교양으로 허영을 부러보기도 하는 룬펜의 자의식을 그린 작품으로는 그의 등단작 「준비」(《중외일보》, 1930. 1. 11~16 연재) 이래 「조락」(《신동아》, 1934. 10), 「촉루」(《중앙》, 1936. 6), 「준동」(《문장》, 1939. 4), 「못다 핀 꽃」(《여성》, 1939. 5), 「미로」(《문장》, 1939. 7), 「동요」(《문장》, 1939. 7), 「우울증」(《조광》, 1940. 9) 등이 있다.

먼저 「조락」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혈혈단신으로 성장하여 5년째 동경을 방황하고 있는 '나(긴 상)'는 작가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행동과 사상의 무정부 상태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경성 '프로예술동맹'의 박 군에게서는 타락한 인간이라고 비난하는 절교장이 날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일본 여성인 '유미에'만이 헌신적인 사랑으로 '나'의 곁을 맴돌고 있다. 결국 신변을 정리하고 '유미에'에게 안착하여 성실한 생활을 꾸려가기로 결심한 시점에서 상황이 반전하며 주인공이 상업적이고 친일적인 잡지사에 매수되는 것으로 작품은 끝을 맺는다. 전향한 사회주의 지식인의 좌절을 그린 등단작 「준비」와 「조락」의 분위기에서 정인택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대의명분들이 소멸해가는 데 대한 그의 무력감을 짐작해볼 수 있다. 「촉루」, 「준동」, 「미로」 또한 무기력한 실직 인텔리의 힘겨운 생존을 그린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은 현실을 부유하는 룬펜 인텔리의 무기력 속에서 오직 자신을 위해주는 '유미에' 류의 여인들의

사랑만이 주인공을 살게 하는 작은 힘이 될 뿐이다.

「업고」(《문장》 6·7합번호, 1940. 7)와 「우울증」(《조광》, 1940. 9)은 친구 이상의 사생활 및 연애담 혹은 애정 도피 행각 등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정인택은 이상의 사생활에서 취한 소재에 자신의 이야기를 혼합하여 지고지순한 로맨스로 재구성하기도 했는데, 「여수」(《문장》, 1941. 1), 「연련기」(《동아일보》, 1940. 3. 7~4. 3, 20회 연재), 「상극」(《농업조선》, 1939. 6)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작품에는 이상이 백천온천에서 금홍이를 만났던 일, 정인택 자신의 동경 시절, 그리고 차츰 사랑을 깨달아가는 '유미에'와의 사건 등이 결합되어 있다. 한편 「범가족」(《조광》, 1940. 1), 「착한 사람들」(《삼천리》, 1940. 12), 「구역지: 이십 년 전의 가느무꿀 풍경」(《조광》, 1941. 4)은 당대를 살아가는 소시민들의 소박한 생활상 및 세대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 작품들이다.

이러한 일련의 작품 경향은 1941년 태평양전쟁을 기점으로 확연한 전환을 맞이한다. 먼저 「행복」(《춘추》, 1942. 1)의 줄거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넉넉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생을 난봉꾼으로 살아온 예순 나이의 복덕방 노인 김지도는 몰락한 상황에서도 동년배의 노인들과 잘 못 어울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이러한 의도는 호구지책의 구실이기도 했는데, 그들이 별로 힘을 들이지도 않고 돈을 버는 비결을 배우고자 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노인에게 옛 애인이었던 기생 춘홍이 찾아온다. 춘홍은 김노인과 헤어질 당시 그의 아이를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며, 그 아이가 지금 성장하여 지원병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그런데 '성전聖戰의 임무'에 참여하려면 적자의 신분을 갖추어야 하는데다 자신이 사생아인 것을 부끄러워하여 아들을 김 노인의 호적에 넣기 위해 어머니인 춘홍이 그를 찾아온 것이었다. 김 노인은 자신의 아들을 흔쾌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사실에 행복해 마지

않는다.

「곡궐(楮質)」(《녹기》, 1942. 1)은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조선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의 결혼이 소재다. 몰락한 양반가의 차남인 학주는 고향 끝에 취직하여 경성에서 일본인인 시즈에靜江와 동거하며 아들도 낳았다. 그러나 학주의 아버지는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의 문전박대로 아이가 폐렴으로 죽게 되자 학주는 아버지와 의절하고 지낸다. 그러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2년 만에 귀향하는데, 사실은 그 위독 소식이 조선인 여자와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계략임을 알고 학주는 집을 뛰쳐나온다. 뒤따라오던 동생 용주는 자신도 경성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근간 지원병이 되고 싶다고 사정한다. 학주는 동생도 아버지의 단단한 껍질에 부딪힐 것을 염려하지만, 결국 동생의 의도를 이해하고 허락한다.

「뒤돌아보지 않으리かへりみはせじ」(《국민문학》, 1943. 10)는 “출전하면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라는 시구의 일부를 표제로 한 일인칭 서간체 형식의 단편소설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특별한 줄거리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 편지를 쓰는 주인공 켄賢이 지원병제 실시에 따라 황민의 도리를 다하고자 출전한 뒤 어머니와 동생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다짐하는 내용으로서, 군국주의 일본이 가장 이상적인 인물로 상정한 조선 청년의 모델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는 부락의 갱생에 전력을 다하다 죽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잇기 위해 고등농림학교에 들어갔던 ‘나’는 수학 도중 지원병으로 입대하였다. ‘나’의 편지는 위문품과 센닌바리尺八針를 보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공을 세우지 못해 죄송하다는 내용이 주가 된다. ‘나’는, 부모보다 앞서 죽는 게 원래 불효로 치부되지만 전시에는 부모보다 앞서 전사하는 것이 오히려 효도라고 생각한다. 동생 켄에게는 징병제가 실시되

었으니 언젠가 ‘영광스러운 초대’가 올 것에 대비하는 준비를 당부한다. ‘나’는 이제 전사할 때가 되었다면서 ‘천황’을 위한 영광스러운 죽음의 노래인 〈바다에 가면海へゆかば〉을 부른다.

「해변」(《춘추》, 1943. 12)은 해군지원병제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단편소설이다. ‘황소’로 불릴 정도로 힘이 센 덕모는 개망나니 노릇을 하다 동네에서 쫓겨났다가 어부인 아버지의 부음을 듣고 3년 만에 귀향한다. 떠날 때 그대로의 더럽고 험오스러운 덕모의 모습에 손가락질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덕모가 평소 존경하던 김 선생의 조언으로 모범 청년으로 돌변하자 인식을 달리하게 된다. 바다에서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는 덕모에게 김 선생은 아버지가 일생을 바친 바다에 헌신하는 길만이 아버지의 한을 푸는 것이라고 일러준다. 김 선생의 조언에 깨달음을 얻은 덕모는 정어리 공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해보지만 바다에 대한 열정으로 늘 애가 탄다. 그러던 중 동네 처녀 옥희가 가져다준 신문에서 “해군지원병제 실시”라는 기사를 보고 감격에 겨워 출전을 다짐한다.

「아름다운 이야기美しい話」(『청량리계외』,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1944)에서 반도인인 ‘나’는 업무차 도쿄에 왔다가 우연히 10여 년 전 하숙을 했던 시모무라下村 집안의 내력에 대해 듣게 된다. 시모무라 집안의 오시노お篠 할머니는 우에노전쟁上野戦争에서 남편을 잃은 뒤 러일전쟁에서 두 아들마저 잃은 채, 며느리와 함께 살아왔다. 오시노 할머니와 두 며느리 모두 전쟁에서 남편을 잃었지만, 이들은 대군大君의 방패가 되어 산화한 용사의 아내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믿고 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선배와 ‘나’는, 이제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선포되었으므로 이런 미담이 좋은 모범이 되겠다며 웃는 장면에서 끝을 맺는다.

「각서」(『청량리계외』,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1944)의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광산으로 전 재산을 날린 아버지는 만주로 떠난 채 행방불명되고, 나는 보통학교를 마치자 첫사랑 정희와 이별하고 경성으로 올라온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경성제대 예과를 거쳐 법과에 진학한 '나'는 일본인 친구 오키촌 군의 동생 도키코崎子에게 끌린다. 그러던 중 마침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나'는 각서를 쓰고 학도병에 지원한다. 자신의 결정에 반대할 줄 알았던 어머니 또한 적극 권한다. '나'는 이제 곧 전쟁터로 나간다는 데 대한 설레는 마음도 가라앉고 지극히 평정된 마음으로 '황은皇恩'에 보답할 때임을 깨닫는다.

방송소설 원고인 「나무의 일생」과 「청향구」(『방송소설명작선』, 조선출판사, 1943. 12)는 짧은 단편이지만 국책 선전의 성격이 더욱 노골적이다. 「나무의 일생」은 한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조성된 울창한 삼림이 황폐화된 마을을 되살렸으나 그 무성한 수목들이 전쟁에 나갈 목조선 재료로 공출당하는 것을 안 마을 사람들이 애국적인 차원에서 기쁘게 생각한다는 내용이다. 「청향구」는 일본과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력을 집중하여 철저히 일제에 의해 다스려지는 '평화의 모범지대'인 '청향구' 안에서 성공적인 양계 현황과 이노우에의 헌신적인 구역 사랑, 그리고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의 전향을 다룬 소설이다. 같은 맥락에서 일제가 정책적으로 조성한 지역에 대한 감회와 유토피아적 만주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선전 효과를 노린 소설 「검은 흙과 흰 얼굴」(『조광』, 1942. 11)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조선의 비참한 현실에 비해 만주 개척지의 우수한 조건들을 강렬하게 부각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지역적 이질감을 환기하고 조선적 정서를 유발하여 친근감을 조성하고자 한 의도가 보인다. 요컨대 이 작품은 만주 군벌체제를 부정하고, 만주국 성립 이후 안정된 농촌이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시기의 작품들이 만주를 흔히 개생의 공간으로 그렸듯이, 이 작품 역시 생산소설의 연장

으로서 '만주개척소설'이라 할 수 있다. 즉, 정인택의 만주 개척민 부락시찰을 통해 창조된 이 작품들은 '오족협화'나 '왕도낙토'라는 만주국 건국이념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대동아공영'의 이념 선전으로 이어지는 서사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농무」(『국민문학』, 1942. 11) 역시 만주를 무대로 한 단편소설이다. 조선인 센다+田는 농사일이 지겨워 집을 나간 뒤, 트럭 운전수가 되어 만주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그는 만주사변이 발발하자 바로 북쪽 전쟁터에 나가 용맹한 운전수로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어느 날 비적匪賊 토벌을 나갔다가 부상을 입은 센다는 군과 만주척식회사의 도움으로 안도현에 일자리를 얻게 되었는데, 우연히 안도현의 개척민 명부를 보고 자신의 가족과 아버지가 현 내의 유수둔으로 오게 된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매일같이 비적 토벌에 나가느라 미처 아버지 일행을 찾아가지 못했던 센다는 어느 날 새벽, 아버지 일행이 머무는 지역 부근의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비적을 토벌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구할 작정으로 토벌대를 태운 트럭을 전속력으로 몰기 시작한다. 이 소설은 비적 토벌의 용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그 초점은 역시 만주 개척민 보호에 있다. 당시 만주 개척민들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비적 습격에 의한 치안 불량이었는데, 요컨대 정인택은 만주국의 오랜 골칫거리였던 비적을 절멸한 일본의 치안 확보와 동시에 개척민의 안전한 정착이 가능해진 낙토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정치·경제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지역 유치로 이어진다.

일본어로 창작된 '국민문학'이면서도 총독부로부터 문학적인 완성도를 인정받은 문제적인 작품 「청량리계외」(『국민문학』, 1941. 11)는 《매일신보》에 4회에 걸쳐 연재된 수필 「청량리계외」(『매일신보』, 1937. 6. 26~7. 2)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소설이다. 지식인인 주인공 부부가 청량



리 일대로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빈민가인 이곳에는 아이들의 유일한 초등교육기관인 인문학원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학원 옆에 있는 주인공 부부의 집을 마음껏 이용하는 데 대해 아내는 조금씩 귀찮아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이 마을의 애국반장을 맡아 주민들을 계몽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주인공 부부는 이웃과 점차 친밀해진다. 이를 통해 변화하게 된 주인공 부부는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피폐해가는 인문학원을 회생시킬 계획을 세우고 돈을 모금하여 방공호를 건립하는 등 전시하 모범 가정의 모델이 된다.

그 밖에 정인택 스스로 만주 개척민 부락을 자주 시찰한바, 개척민의 생활을 소개하고 유토피아적 상상의 공간으로서 만주에 대한 이주를 독려하는 산문들로는, 「작가개척지행(전기前記)—만주행 전기」(《대동아》, 1942. 7), 「대지의 역사 1~3」(《매일신보》, 1942. 7. 27~29), 「개척민의 감정開拓民の感情—기행식의 개척지 보고紀行風な開拓地報告」(《춘추》, 1942. 8. 10), 「옥토의 표정」(《신시대》, 1942. 9), 「만주 개척지 기행滿洲開拓地紀行—대리구둔을 중심으로大梨溝屯を中心に」(《국민문학》, 1943. 3), 「대전하의 만주농촌—낙토에 충천하는 개척민의 의기」(《半島의光》, 1943. 4) 등이 있다. 여기서 정인택은 만주 개척민 사업을 '팔굉일우八紘一宇'의 정신으로 일관해야 하는 '성업聖業'으로 파악하면서 '민족협화'를 이루어 신흥농촌 문화 건설의 책임을 독려하는 선각자로 자처하고 있다. 이렇듯 총력전 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인택의 '국책 소설'은 첫째, 총력전 체제하 총후 국민의 자세를 그린 것, 둘째, 지원병제 및 징병제 실시에 대한 찬양·선전을 표방한 이데올로기 작업, 셋째, 만주 개척민 부락 시찰을 통해 대동아공영의 이념으로서 '개척 농촌'을 그린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리하여 서구 모더니즘 문화의 정수를 세례받고 동경의 풍물을 그리던 모던 보이 정인택은 식민지 조선의 많은 작가가 그랬듯 일제의 총

력전 체제하 '문필보국'으로 흡수되면서 마침내 '국민문학'의 한 획을 긋는 작가로 자리매김될 수 있었던 것이다.

### 3. 총력전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의 좌표

총력전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은 일본 제국이 강요했던 '국민문학'의 한 축을 대표한다. 그것은 '총후 윤리'로 대변되는 이데올로기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주체 없는 주체화로서의 행위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른바 총력전 체제하의 '국민문학'이란 조선 문인들에게는 문인 자격을 유지하는 일종의 시험대였던 만큼, 총력전 수행을 위한 이데올로기 작업은 그것을 '명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행동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케 할수록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허무도 잔존했다. 어느 한군데 하소연할 데 없이 "될 대로 되라고 몽롱한 정신으로" 만취한 자신에게 "훌륭한 체관諦觀과 허무만이 몸에 붙"("범가족")어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농부가 되겠다는 심사로 고향에 돌아와 '국어강습회'를 열어보아도 피로한 것은 마찬가지이다("결전"). 도회에서 태어나 도회 밖에 모르는 자신에게 관심도 없고 생소하기만 한 만주를 시찰케 하여 작품을 쓰게 한 총독부의 요구 이외에도 '무형의 압박'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는("범가족") 이유로 출발하기 전 열흘 동안 두문불출하고 개척민과 만주에 대해 벼락공부를 해야 했다는 변명이 필요했던 것은 이 때 문이다. "내지어로 쓰라고 해도 실제 내지어로의 예술적 형상이 가능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김사량 전집 4, 하출서방신사, 27면)을 감안한다면, 정인택의 우수한 일본어 실력도 한몫했을 터이고, 이것

이 곧 '국어문학총독상' 수상이라는 기념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국 일본의 시선과 자신을 철저하게 동일시한 정인택으로서 "결론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행동할 것을 배우"('범가족')는 결단의 국면이 필요했고, 그것은 또한 총력전 체제하에 동원된 지식인으로서 '개척 문예'의 효과를 훌륭히 완수할 수 있도록 작동되었다. 즉, 여기에는 언어를 가진 인간 존재의 비극성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모던 보이를 자처했던 정인택은 총력전 체제에 직면하여 '국민문학'으로 전향한 대표적 문인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언어를 지닌 인간 존재의 비극성 재현을 통해 과거를 강렬하게 환기함으로써 그것과 철저하게 이별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역사의 반복 가능성과의 경쾌한 이별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작가연보

- 1909년 9월 12일 서울 안국정安國町에서 계몽운동가(서북학회 회장)이자 언론가(《경성일보》와 《한자신문》의 주필, 《제국신문》 제2대 사장 및 초대 주필), 정치가였던 정운복鄭雲復과 조성녀趙姓女 사이에서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남.
- 1920년 부친 정운복 사망.
- 1922년 3월 22일 수하동 공립보통학교 졸업.  
4월 22일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입학.
- 1923년 모친 조성녀 사망.
- 1927년 3월 25일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경기중고등학교의 전신) 졸업.  
4월 경성제국대학 입학.
- 1930년 1월 단편소설 「준비準備」로 《중외일보》(1930. 1. 11~16 연재) 현상공모 2등 당선.  
6월 25, 27, 28일 번역소설 「안더슨 동화童話, 나그네 두 사람(上中下)」을 《매일신보》에 연재.  
7월 동화 「시계時計」와 「불효자식」을 《매일신보》에 발표.  
9~10월 동화 「눈보라」를 《매일신보》에 발표.
- 1931년 동경 유학.  
8월 29일~9월 11일 「동경東京의 삽화插畫」를 《매일신보》에 연재.
- 1934년 귀국.  
귀국 후 1939년 4월까지 매일신보사 학예부 기자.  
2월 34일~3월 3일 수필 「봄·동경東京의 감정感情」을 《매일신보》에 연재.  
10월 단편소설 「조락凋落」을 《신동아》에 발표.
- 1935년 8월 29일 이상李箱이 경영하던 카페 〈쓰루鶴〉의 여급이었던 권영희(권순옥)와 결혼.
- 1936년 봄 아들 태혁泰革 출생.  
6월 단편소설 「족부」를 《중앙》에 발표.
- 1937년 6월 26, 27, 30일, 7월 2일 일본어 수필 「청량리계의 靑涼里界外」를 《매일신보》에 발표.

1939년 3월 6일 아들 태혁이 수암水癌으로 사망. 이에 대한 기록은 산문 「담담기淡々記」(《문장文章》, 1939. 5), 「공수방관기拱手傍觀記」(《박문》, 1939. 8)와 단편소설 「단장短章」(《문장》, 1941. 2)에 남아 있음.

12월 27일 장녀 태선 출생.

4월 단편소설 「준동蠢動」을 《문장》에 발표.

5월 매일신보사 학예부에서 문장사로 옮겨 이태준과 《문장》 편집에 참여.

5월 단편소설 「못다 핀 꽃」을 《여성》에 발표.

6월 장위정長位町에서 원남정苑南町 7번지로 이사.

6월 단편소설 「상극相勮」을 《농업조선》에 발표.

7월 단편소설 「미로迷路: 어느 연대年代의 기록記錄」과 「동요動搖」를 《문장》에 발표.

7월 단편소설 「동요動搖」를 《문장》에 발표.

8월 단편소설 「훈향薰香」을 《조광》에 발표.

10월 단편소설 「감정感情의 정리整理」를 《신세기》에 발표.

12월 단편소설 「계절季節」을 《농업조선》에 발표.

1940년 1월 단편소설 「범가족凡家族」을 《조광》에 발표.

3~4월 단편소설 「연련기戀戀記」를 《동아일보》에 20회 연재.

4월 단편소설 「가향모색家鄉暮色」을 《농업조선》에 발표.

4월 단편소설 「천사하강天使下降」을 《신세기》에 발표.

5월 콩트 「혼선混線」을 《여성》에 발표.

7월 단편소설 「업고業苦」를 《문장》 6·7월 합호에 발표.

8월 단편소설 「헛되인 우상」을 《여성》에 발표.

9월 단편소설 「우울증憂鬱症」을 《조광》에 발표.

10월부터 1945년 8월까지 매일신보사 기자.

12월 단편소설 「착한 사람들」을 《삼천리》에 발표.

1941년 1월 산문 「신체제하新體制下의 문학文學 활동活動 방침方針-국민문학國民文學에 영도領導」 발표.

1월 단편소설 「여수旅愁」를 《문장》에 발표.

2월 단편소설 「단장短章」을 《문장》에 발표.

3월 단편소설 「부상관扶桑館의 봄」을 《춘추》에 발표.

4월 중편소설 「구역지區域志-이십 년 전의 가느무골 풍경」을 《조광》에 발표.

7월 단편소설 「봉선화鳳仙花」를 《매일신보每日新報》에 7회 연재.

여름 낙랑고분군 발굴 현장을 시찰하기 위해 화가 K와 평양 기행. 관련 기록은 「낙랑고분군·기타樂浪古墳群·其他」(《삼천리》, 1941. 11)에 남아 있음.

7월 7일 문인협회의 용산 호국신사 어조영지御造營地 근로 봉사에 참가.

11월 일본어 소설 「청량리계외」를 《국민문학》에 발표. 이 소설은 1937년 6월 26일부터 7월 2일 4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한 수필을 기초로 창작되었으며, 이는 1941년 11월 소설로 재창작되어 《국민문학》에 재수록됨. 그 뒤 1943년 4월 『조선국민문학집朝鮮國民文學集』에 재수록되고, 1944년 12월 창작집 『청량리계외』에 또다시 수록됨. 이 창작집으로 제3회 '국어문학총독상' 수상.

겨울 원남정 7번지에서 창천정滄川町으로 이사.

1942년 1월 단편소설 「행복幸福」을 《춘추》에 발표.

1월 단편소설 「곡궤」을 《녹기》에 발표.

3월 산문 「엄숙嚴肅한 의무義務」를 《반도의 빛半島의光》에 발표.

4월 산문 「새로운 국민문학의 도-작가의 마음가짐·기타新しい國民文學の道-作家の心構へ·その他」를 《국민문학》에 발표.

4월 일본어 단편소설 「산傘」을 《신시대》에 발표.

4월 일본어 단편소설 「색상자色箱子」를 《국민문학》에 발표.

5월 일본어 단편소설 「만년기晩年記」를 《동양지광》에 발표.

5월 수필 「신록잡기新綠雜記」를 《춘추》에 발표.

6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장혁주, 유치진과 만주 개척민 부락을 시찰하고 돌아온 후, 그에 대한 보고서 성격의 글인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開拓民部落長 現地座談會-좌담회 전기座談會前記」(《조광》 1942. 10)를 발표.

6월 18일 일본어 산문 「합이빈에서哈爾濱で」를 《경성일보》에 발표.

6월 23일 일본어 산문 「천진에서天津で」를 《경성일보》에 발표.

6월 25일 일본어 산문 「목단강에서木壇江で」를 《경성일보》에 발표.

6월 30일 일본어 산문 「연길에서延吉で」를 《경성일보》에 발표.

6월 수필 「이웃사촌四寸」을 《조광》에 발표.

6월 1일 장혁주, 유치진과 함께 만주 개척민 부락을 시찰하고 돌아와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좌담회 전기」(《조광》, 1942. 10)를 발표.

7월 일본어 산문 「여·신·초旅·信·抄」를 《국민문학》에 발표.

7월 산문 「만주행 전기滿洲行前記」를 《삼천리》에 발표.

7월 기행문 「작가개척지행作家開拓地行(전기前記)—만주행 전기滿洲行前記」를 《대동아》에 발표.

7월 27~29일 산문 「개척지웅소묘開拓地熊素描: 대지大地의 역사歴史」를 《매일신보》에 3회 연재.

8월 일본어 산문 「개척민의 감정開拓民の感情—기행식의 개척지 보고紀行風な開拓地報告 その一」를 《춘추》에 발표.

9월 5일 기독교청년회관에서 개최한 상임간사회에서 조선문인협회 간사로 임명됨.

9월 산문 「반도 개척민 부락 풍경半島開拓民部落風景: 옥토沃土의 표정表情」을 《신시대》에 발표.

10월 18일 차녀 태연 출생.

10월 조선문인협회 문학부 간사로 임명됨.

10월 일본어 산문 「개척민의 감정—기행식의 개척지 보고(완)開拓民の感情—紀行風な開拓地報告(完)」을 《춘추》에 발표.

11월 14일 국민총력조선연맹과 조선문인협회의 초빙으로 대동아문학자대회(11. 3~16)에 참석한 만주, 몽고, 중국 대표 21명을 안내함.

11월 단편소설 「검은 흙과 흰 얼굴」을 《조광》에 발표.

11월 단편소설 「농무濃霧」를 《국민문학國民文學》에 발표.

12월 일본어 산문 「한 알의 씨앗一粒の種」을 《신여성新女性》에 발표.

12월 26일~1943년 1월 만주국 간도성의 초빙으로 채만식, 이석훈, 이무영, 정비석과 함께 12월 26일 오후 3시 50분 경성역 발 모란강행 열차로 출발. 개척민 부락 견학. 이와 관련한 내용은 「간도성 시찰작가단 보고開島省視察作家團報告」(《녹기》, 1943. 2)의 좌담회와 「대전하大戰下의 만주농촌滿洲農村: 낙토樂土에 충천冲天하는 개척민開拓民의 의기意氣」(《반도의 빛》, 1943. 4)에 기록되어 있음.

1943년 1월 5일 귀국.

1월 7일 일본어 산문 「낙타산에서駱駝山で」를 《경성일보》에 발표.

1월 채만식, 이석훈, 이무영과 함께 「간도개척촌을 시찰한 작가들의 좌담회」에 참석하여 만주국 간도성 이민부락의 교육상황과 이민정책 및 결혼문제에 대해 토론. 이에 대한 내용은 「교육열 왕성教育熱旺盛에 감복感服」(《매일신보》, 1943. 1. 10)에 실려 있음.

2월 6일 주요한, 이태준, 김억, 유치환 등과 국민총력조선연맹이 개최한 국어문학 총독상 간담회에 참석.

3월 일본어 수필 「서재 등등書齋など」을 《조광》에 발표.

3월 일본어 산문 「만주 개척지 기행滿洲開拓地紀行—대리구둔을 중심으로大梨溝屯を中心に」를 《국민문학》에 발표.

4월 「대전하의 만주농촌낙토에 충천하는 개척민의 의기」(《반도의 빛》, 1943. 4)

4월 29일 일본 작가 환영간담회(반도호텔)에 참석.

4월 22일~1945년 8월 조선문인보국회 간사 및 간사장 역임.

4월 29일 일본인 남방중군작가 환영교환회 참석.

5월 26일 내선작가교환회 참석.

6월 1일 조선문인보국회 소설·희곡부회 간사에 임명됨.

6월 4일 조선문인보국회 개최 전선시찰종합좌담회(체신회관)에 참석.

8월 4일 징병제 실시 감사 결의 선양을 위한 '낭독과 연극의 밤'에서 콩트 발표.

8월 5일 국민총력조선연맹 주최 미소기(讓) 연성을 위해 홍효민, 조우식, 야마다 에이스케山田榮助, 나카오中尾清와 함께 외금강으로 파견되어 8월 6일부터 5일간 37명의 일행과 연성회에 참가하여 수련함. 이와 관련된 글은 「직령直靈의 개현開顯」(《매일신보》, 1943. 2. 28) 참조.

8월 18, 19일 산문 「직령의 개현: 미소기 연성회 참가기讓成會 參加記」를 《매일신보》에 2회 연재.

9월 일본어 소설 「불초의 자식들不肖の子ら」을 《조광》에 발표.

9월 일본어 산문 「미소기 연성讓成—미소기 연성행讓成行」을 《신시대》에 발표.

10월 일본어 소설 「뒤돌아보지 않으리라かへりみはせじ」를 《국민문학》에 발표.

10월 일본어 산문 「문화인의 연성文化人の鍊成」을 《녹기》에 발표.

10월 단편소설 「결전決戰」을 《반도의 빛》에 발표.

11월~1944년 1월 말일을 기한으로 한 조선문인보국회 주관의 '국어 창작  
결전소설과 회곡' 현상모집의 심사위원을 맡음.  
12월 단편소설 「해변海邊」을 《춘추》에 발표.  
12월 단편소설 「청향구淸鄕區」(『방송소설명작선』, 조선출판사, 1943) 발표.  
12월 단편소설 「나무의 일생一生」을 『방송소설명작선』(조선출판사, 1943)에  
수록.  
12월 단편소설 「푸른 언덕」을 《방송지우》에 발표.  
1944년 2월 일본어 산문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ども」을 《조선》에 발표.  
7월 일본어 소설 「각서覺書」를 《국민문학》에 발표.  
8월 28일 신문 조선군 보도대 보도연습에 참가.  
9월 15일 일본어 산문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ども」을 《국민총력  
國民總力》에 발표.  
11월 17일 조선문인보국회에서 개최한 대동아 교섭 방송 원고에 정인택의  
작품이 당선됨.  
12월 소설집 『청량리계의 淸涼里界外』(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간행, 제3회 국  
어문학총독상 수상.  
1945년 1월 일본어 산문 「결전의 신춘에 생각한다決戰の新春に思ふ: 다케야마 대위의  
얼굴武山大尉の顔」을 《국민총력》에 발표.  
3월 22일 동경흥생회東京興生會의 초대로 약 20일간 일본의 반도 출신 응징사  
를 위문한 뒤 귀국하여, 철저한 공습 대비로 적 격멸에 힘쓸 것을 당부한 「생  
사초월生死超越 인정人情의 꽃」을 《매일신보》(1945. 4. 22)에 발표함.  
5월 11일 조선문인보국회 소설부회에서 생산 근로 각 부문에 중견작가 10명  
을 파견하여 전쟁 반도의 생생한 모습을 전작 소설로 집필케 한 후 동도 서  
적주식회사의 출판으로 결전문학총서 제1집을 간행키로 계획하였는데, 이때  
유진오, 조용만, 김사량, 정비석, 정인택이 집필 작가로 선정됨.  
5월 27일 조선문인보국회 개최 '낭독 문학의 밤'에서 정인택의 「빈해濱海의  
노래」가 낭독됨.  
5·6월 산문 「히틀러 전초傳抄」를 《조광》에 발표.  
8월 1일 '조선문인보국회 쇼와 20년도 총회'에서 소설부 간사장으로 임명됨.  
1946년 5월 「박 군과 그 이해」를 《중앙신문中央新聞》에 발표.

1947년 1월 《대한독립신문大韓獨立新聞》 편집국장.  
3월 「황조가黃鳥歌」를 《백민白民》에 발표.  
8월 《문화일보》 편집부장으로 취임.  
1948년 9월 1일 삼녀 태은 출생.  
10월 금릉도서金龍圖書에서 단편집 『연련기戀戀記』 출판.  
1949년 동지사同志社에 근무하면서 동화집 『난쟁이 세 사람』 발간.  
이해 과거 자신의 과오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함(권  
영민, 『해방 직후의 민족문예운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12월 5일 새로 수립한 남한 정부가 문화인들의 단결과 선전을 위해 종합예  
술제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정인택은 「북조선 문학예술총동맹에게 경고」  
(《서울신문》, 1949. 12. 5)라는 글을 발표하여 북한의 문화인들에게 민족정  
신과 양심을 환기하여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촉구함.  
1950년 보도연맹에서 근무(「문인주소록」, 《문예》, 1950. 2).  
5월 《자유신문》(5. 5~6. 25)에 소설 「청포도靑葡萄」를 43회에 걸쳐 연재 중  
중단.  
6·25 당시 박영희, 정지용, 김기림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백조》 동  
인과 중군 작가단」, 『김팔봉 전집 V』).  
1953년 한국전쟁 중 부인과 세 딸을 데리고 인민군이 후퇴할 때 월북했다가 북에서  
사망.  
1955년 권영희와 박태원 재혼.

|작품 목록|

■ 소설

- 1930년 「준비準備」, 《중외일보》, 1월 11~16일.  
번역소설 「안더슨 동화童話, 나그네 두 사람(上中下)」, 《매일신보》, 6월 25, 27, 28일.  
동화 「시계時計」, 《매일신보》, 7월 9일.  
동화 「불효자식」, 《매일신보》, 7월 13일.  
동화 「눈보라」, 《매일신보》, 9월 11일~10월 5일.
- 1934년 「조락凋落」, 《신동아》 10월.
- 1935년 「단교이문斷橋異聞」, 《매일신보》, 2월 19~28일.
- 1936년 「축루齣露」, 《중앙》, 6월.
- 1939년 「준동蠢動」, 《문장》, 4월.  
「상극相戩」, 《농업조선》, 6월.  
「동요動搖」, 《문장》, 7월 임시증간호.  
「미로迷路: 어느 연대年代의 기록記錄」, 《문장》, 7월.  
「훈향墨香」, 《조광》, 8월.  
「감정感情의 정리整理」, 《신세기》, 10월.  
「계절季節」, 《농업조선》, 12월.
- 1940년 「범가족凡家族」, 《조광》, 1월.  
「연련기戀々記」, 《동아일보》, 3월 7일~4월 3일, 20회 연재.  
「가향모색家鄉暮色」, 《농업조선》, 4월.  
「천사하강天使下降」, 《신세기》, 4월.  
「콩트: 혼선混線」, 《여성》, 5월.  
「업고業苦」, 《문장》 6·7월 합호, 7월.  
「헛되인 이상」, 《여성》, 8월.  
「우울증憂鬱症」, 《조광》, 9월.  
「착한 사람들」, 《삼천리》, 12월.
- 1941년 「여수旅愁」, 《문장》, 1월.

- 「단장短章」, 《문장》, 2월.  
「부상관扶桑館의 봄」, 《춘추》, 3월.  
「구역지區域誌—이십년二十年 전前の 가느무골 풍경風景」, 《조광》, 4월.  
「봉선화楓仙花 1~7」, 《매일신보》, 7월 8(朝), 10, 13, 15, 17, 18, 19일.  
(일본어) 「청량리계의외靑凉里界隈」, 《국민문학》, 11월.  
(일본어) 「아름다운 이야기美しい話」, 『청량리계의외靑凉里界隈』,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일본어) 「물가濱」, 『청량리계의외靑凉里界隈』, 조선도서출판주식회사.
- 1942년 「행복幸福」, 《춘추》, 1월.  
(일본어) 「껍질殼」, 《녹기》, 1월.  
(일본어) 「우산傘」, 《신시대》, 4월.  
(일본어) 「색상자色箱子」, 《국민문학》, 4월.  
(일본어) 「만년기晩年記」, 《동양지광》, 5월.  
「검은 흙과 흰 얼굴」, 《조광》, 11월.  
(일본어) 「농무濃霧」, 《국민문학》, 11월.
- 1943년 (일본어) 「참새를 굶다雀餓く」, 《문화조선》, 1월.  
「고드름」, 《조광》, 3월.  
「동창東窓」, 《조광》, 7월.  
(일본어) 「뒤돌아보지 않으리かへりみはせじ」, 《국민문학》, 10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1회), 《반도의 빛》, 10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2회), 《반도의 빛》, 11월.  
「해변海邊」, 《춘추》, 12월.  
「청향구靑香區」, 『방송소설명작선放送小說名作選』, 조선출판사, 12월.  
「나무의 일생一生」, 『방송소설명작선放送小說名作選』, 조선출판사, 12월.
- 1944년 (일본어) 「다케야마 대위武山大尉」, 《국민총력》, 1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3회), 《반도의 빛》, 1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4회), 《반도의 빛》, 2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5회), 《반도의 빛》, 3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6회), 《반도의 빛》, 4월.  
연재소설 「건설建設」(제7회), 《반도의 빛》, 5월.

- (일본어) 「개나리連翹」, 《문화조선》, 5월.  
 「푸른 언덕」, 《방송지우》, 5월.  
 「봉익鵬翼」, 《조광》, 6월.  
 (일본어) 전기소설轉記小説 『반도의 육취 다케야마 대위半島の陸鷲 武田大尉』, 매일신보사, 6월.  
 (일본어) 「각서覺書」, 《국민문학》, 7월.  
 (일본어) 전기소설 『다케다武田 대위大尉』, 매일신보사, 7월.  
 (일본어) 「갑종합격甲種合格」, 《문화조선》, 12월 25일.  
 창작집 『청량리계의清涼里界外』, 조선도서출판사, 12월.  
 (일본어) 『애정愛情』, 반도작가단편집半島作家短篇集, 조선도서출판.
- 1945년 「소화小話: 상투」, 《반도의 빛》, 1월.  
 「다케다武田 대위大尉」, 《국민총력》, 1월 1, 15일 합병호.
- 1946년 「콩트: 박 군朴君과 그 이해」, 《중앙신문》, 5월 4일.
- 1947년 「황조가黃鳥歌」, 《백민》, 3월.  
 「향수鄉愁」, 《제삼특보》, 12월 3~29일.
- 1948년 「필맹畢孟」, 《새한민보》, 5~6월.  
 소설집 『연련기戀戀記』, 금릉도서.
- 1949년 그림동화집 『난쟁이 세 사람』, 동지사.
- 1950년 「청포도靑葡萄」, 《자유신문》, 5월 5일~6월 26일 연재 중단.
- 신문
- 1930년 「눈보라」, 《매일신보》, 9월 11일.
- 1931년 「동경東京의 삽화插畫」, 《매일신보》, 8월 30, 31일, 9월 1일.  
 「팔월八月 동경東京의 삽화插畫」, 《매일신보》, 8월 29일.
- 1932년 「방랑자放浪者の 일기日記」, 《매일신보》, 7월 23일(夕).
- 1934년 「조선문단朝鮮文壇에 주는 글월: 동경東京에서 본 조선문단朝鮮文壇」, 《매일신보》, 1월 3일(夕).  
 「범죄실험관犯罪實驗管」, 《월간매신》, 5월 20일.  
 「동경東京의 겨울밤 풍경風景」, 《신동아》, 12월.
- 1935년 「감정感情의 빈곤貧困 신록新綠의 감상感想」, 《매일신보》, 5월 30(朝), 31일.

- 6월 1일.  
 「각지 학교 평의원各地學校評議員 칠월 일일七月一日의 선거 결과選舉結果」, 《매일신보》, 7월 4(朝), 6일.  
 「지성知性的의 문제問題: 감상적 감상感傷的感想」, 《매일신보》, 8월 6(朝), 7, 8일.
- 1936년 「문단일제文壇一題—기형아적畸形兒의 사고思考에 關係하여」, 《중앙》, 7월.
- 1937년 (일본어) 「서재書齋」, 《매일신보》, 3월 4~5일.  
 「희噓 유정裕貞 김 군金君(上)」, 《매일신보》, 4월 3일(朝).  
 「희噓 유정裕貞 김 군金君(下)」, 《매일신보》, 4월 6일(朝).  
 「이런 것을 생각함」, 《조선문학》, 5월.  
 (일본어) 「청량리계의清涼里界隈 1~4」, 《매일신보》, 6월 26, 27, 30일, 7월 2일.
- 1938년 「꿈」, 《박문博文》, 11월.
- 1939년 「담담기談々記」, 《문장》, 5월.  
 「청색포스트」, 《박문》, 5월.  
 「원남정 부근宛南町附近」, 《조선일보》, 7월 2, 4일.  
 「축방逐放」, 《청색지》, 5월.  
 「군자유감君子有感」, 《여성》, 7월.  
 「탐조등探照燈」, 《조선문학》, 7월.  
 「애정愛情 기타其他」, 《조광》, 7월.  
 「사건事件 있는 해변풍경海邊風景—훈향薰香」, 《조광》, 8월.  
 「공수방관기拱手傍觀記」, 《박문》, 8월.  
 「수필隨筆: 초추정상初秋靜想—애정愛情·기타其他」, 《조광》, 9월.  
 「자아自我에의 향수鄉愁—한 個의 속론俗論을 兼한」, 《동아일보》, 11월 25일부터 3회 연재.  
 「요절夭折한 그들의 면영面影—불쌍한 이상李箱」, 《조광》, 12월.  
 「'유미에' 論論」, 《박문》, 12월.
- 1940년 「신춘수필첩新春隨筆帖: Pola's Diary—'마르크카' 幻想幻想」, 《태양》 창간호, 1월.  
 「후목朽木 기타其他」, 《매일신보》, 2월 8일.  
 「초춘수필早春隨筆: 춘일지지春日支持 1~3」, 《조선일보》, 2월 20~22일.  
 「그리운 꿈」, 《여성》, 2월.

- 「반사경反射鏡: 신이상新理想의 수립樹立—현실現實의 지도적指導的 임무任  
務」, 《매일신보》, 2월 16일.
- 「둔감철록鈍感鐵錄」, 《문장》, 3월.
- 「사실事實과 공상空想」, 《조선일보》, 4월 2일.
- 「창窓」, 《여성》, 4월.
- 「영화적 산보映畫的散步」, 《박문》, 4월.
- 「정신精神의 방탕放蕩」, 《조선일보》, 5월 15(夕).
- 「고전古典의 교양教養」, 《조선일보》, 5월 17(夕).
- 「사치奢侈」, 《조선일보》, 5월 18(夕).
- 「작품에독연대기作品愛讀年代記」, 《삼천리》, 6월.
- 「D. W. 그리피드」, 《박문》, 6월.
- 「직녀성織女星에게 부치는 편지便紙—지극至極한 지상地上의 연정戀情」, 《여  
성》, 7월.
- 「소설가小說家の 아버지—아버지의 눈」, 《조광》, 7월.
- 「수필특집: 불길不吉한 비」, 《동아일보》, 7월 28일.
- 「바다에 부침: 동해東海의 기억記憶」, 《조선일보》, 8월 1(朝).
- 「고기잡이」, 《농업조선》, 9월.
- 「제복制服 입는 도시都市—화장化粧 없는 거리」, 《조광》, 10월.
- 「만추수필晚秋隨筆: 고독孤獨」, 《인문평론》, 11월.
- 「작중인물지作中人物誌—나 와 그들」, 《조광》, 11월.
- 「작중인물지作中人物誌 2—나와 그들」(승전承前), 《조광》, 12월.
- 「정도正道」, 《박문》, 12월.
- 1941년 「신체제하新體制下의 문학활동방침文學活動方針—국민문학國民文學에 영도領  
導」, 《삼천리》, 1월.
- 「낙랑고분군樂浪古墳群·기타其他」, 《삼천리》, 11월.
- 1942년 「산山과 마을과」, 《국민문학》, 3월.
- 「전승戰勝의 수필隨筆—엄숙嚴肅한 의무義務」, 《반도의 빛》, 3월.  
(일본어) 「서재 등등書齋など」, 《조광》, 3월.  
(일본어) 「새로운 국민문학의 도新い國民文學の道—작가의 마음가짐作家の心  
構へ·기타その他」, 《국민문학》, 4월.

- 「신록잡기新綠雜記」, 《춘추》, 5월.
- 「이웃사촌四寸」, 《조광》, 6월.  
(일본어) 「합이빈에서哈爾濱で」, 《경성일보》, 6월 18일.  
(일본어) 「천진에서天津で」, 《경성일보》, 6월 23일.  
(일본어) 「목당강에서木盪江で」, 《경성일보》, 6월 25일.  
(일본어) 「연길에서延吉で」, 《경성일보》, 6월 30일.
- 「작가가척지행作家開拓地行(전기前記)—만주행전기滿洲行前記」, 《대동아》, 7월.  
(일본어) 「여신초旅信抄」, 《국민문학》, 7월.
- 「대지大地의 역사歷史 1~3—개척지웅소묘開拓地熊素描 중中에서」, 《매일  
신보》, 7월 27~29일.  
(일본어) 「개척민의 감정開拓民の感情—기행식의 개척지 보고紀行風な開拓地  
報告 その一」, 《춘추》, 8월.  
(일본어) 「개척민의 감정開拓民の感情—기행식의 개척지 보고紀行風な開拓地  
報告(完)」, 《춘추》, 10월.
- 「옥토沃土의 표정表情—반도개척민부락풍경半島開拓民部落風景 中中의 하  
나」, 《신시대》, 9월.
- 「한 알의 씨앗一粒の種」, 《신여성》, 12월.
- 1943년 (일본어) 「낙타산에서駱駝山で」, 《경성일보》, 1월 7일.  
(일본어) 「만주 개척지 기행滿洲開拓地紀行—대리구둔을 중심으로大梨溝屯を  
中心に」, 《국민문학》, 3월.  
「대전하大戰下의 만주농촌滿洲農村—낙토樂土에 충천冲天하는 개척민開拓民의  
의기意氣」, 《반도의 빛》, 4월.  
「직령直靈의 개현開顯 1~2」—「미소기 연성회鍊成會參加記」, 《매일신보》, 8  
월. 18(朝), 19일.  
(일본어) 「미소기 연성鍊成—미소기 연성행鍊成行」, 《신시대》, 9월.  
(일본어) 「쓰지쇼세쓰辻小説集: 불초의 자식들不肖の子ら」, 《조광》, 9월.  
(일본어) 「문화인의 연성文化人の鍊成」, 《녹기》, 10월.
- 1944년 (일본어)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も」, 《조선》, 2월.  
(일본어) 「다케야마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も」, 《국민총력》, 9월.
- 1945년 (일본어) 「결전의 신춘에 생각한다決戰の新春に思ふ: 다케야마 대위의 얼굴



武山大尉の顔」, 《국민총력》, 1월.

「생사초월生死超越 인정人情의 꽃」, 《매일신보》, 4월 22일.

「히틀러 전초傳抄」, 《조광》, 5·6월 합병호.

1947년 「잡기雜記」, 《백제》, 2월.

1949년 「병아리」, 《신천지》, 5월.

「북조선문학예술총연맹北朝鮮文學藝術總聯盟에 경고警告」, 《서울신문》, 12월 5일.

### ■ 월평, 서평, 번역

1934년 「문예시평文藝時評」, 《조선일보》, 7월 28일~8월 3일.

1936년 「이석훈 씨 소설집李石薰氏小說集 '황혼黃昏의 노래' 를 읽고」, 《매일신보》, 5월 23일(朝).

1939년 서평 「보리와 병정兵丁」, 《문장》, 7월.

신간평 「채만식 단편집蔡萬植短篇集」, 《문장》, 10월.

서평 「박영희 저朴英熙著 전선기행戰線紀行」, 《문장》, 11월.

신간평 「구전민요口傳民謠」, 《문장》, 12월.

1940년 평론 「교양教養의 덕德」, 《매일신보》, 3월 9일.

[창작월평] (1) 「조선문학朝鮮文學 특집特輯의 성과成果: 『문예文藝』지誌 소거所舉에 對對하야」, 《매일신보》, 7월 3일(朝).

[창작월평] (2) 「작품의도作品意圖의 불순성不純性: 수출 목표輸出目標에서 온 결함缺陷」, 《매일신보》, 7월 4일.

[창작월평] (3) 「작중인물作中人物의 진실진眞實傳: 효석孝石, 혁주赫宙의 작품作品 等等」, 《매일신보》, 7월 5일.

「시월十月 창작평創作評 1~4」, 《매일신보》, 10월 26~30일.

1941년 신간평 「김남천 저金南天著 '사랑의 수족관水族館」, 《인문평론》, 1월.

「신인新人選」 소감小感-삼월三月 《문장文章》 창작평創作評」, 《문장》, 4월.

이태준 저李泰俊著, 정인택 역鄭人澤譯, 『복덕방福徳房』, 모던니폰샤モダン日本社.

1942년 신간 소개 「테라다 에이 씨 저寺田英氏著 '이야기의 불연속선話の不連続線」, 《국민문학》, 7월.

1943년 「희곡戯曲: 에밀레종エミレの鐘」, 《국민문학》, 1월.

「'고요한 폭풍' 연맹상'靜かな嵐'聯盟賞 작품과 그 작가作品とその作家」, 《경성일보》, 3월 27~28일.

### ■ 대담 및 좌담회

1940년 대담·좌담 「'기호畿湖' 출신出身 문사文士の '향토문화郷土文化' 를 말하는 좌담會座談會-소년 시절少年時節의 로맨스, 향수鄉愁와 느끼는 정회情懷. 기호 작품嗜好作品의 특징特徵, 노후老後와 고향 산천故郷山川」, 《삼천리》, 6월.

1942년 「개척농민시찰 좌담會開拓農民視察座談會-만주의 반도민 개척부락의 조감도滿洲の半島民開拓部落の鳥瞰圖」, 《신시대》, 9월.

「개척민 부락 장현지 좌담會開拓民部落長現地座談會(1942. 6. 25. 간도성 안도현 영경촌공소間島省安圖縣永慶村公所)-좌담회전기座談會前記」, 《조광》, 10월.

1943년 좌담회 「간도성시찰작가단보고間島省視察作家團報告」, 《녹기》, 2월.

### ■ 설문

1939년 「여백문답餘白問答」, 《조광》, 7월.

1940년 「장안長安 신사가정紳士家庭 명부名簿」, 《삼천리》, 3월.

1941년 「'작품作品 애독愛讀' 연대기年代記」, 《삼천리》, 12월.

1942년 (일본어) 「엽서문답葉書問答」, 《국민문학》, 1월.

1944년 「엽서문답葉書問答」, 《조광》, 3월.

「엽서문답葉書問答」, 《조광》, 8월.

Ⅰ 연구 목록

- 강현구, 「정인택의 소설연구」, 고려대 《어문논집》 제28호, 1989.
- 권성우,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9.
- 김강진, 「정인택 소설연구」, 대구대 석사논문, 1993.
- 김신영, 「정인택 연구」, 상명대 석사논문, 2000.
- 김진석, 「정인택 소설 연구」, 한국어언문학회교육학회 《한어문교육》 제4집, 1996.
- 김혜연, 「식민주의 전략과 친일문학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6.
- 박경수, 「정인택의 일본어 소설 연구- '清凉里界限'와 '鴛鴦'를 중심으로」, 전남대 일문과 석사논문, 2007.
- 朴京洙, 「鄭人澤の日本語小説研究- '清凉里界限'と '鴛鴦'を中心に-」, 《日本語文學》 Vol. 33, 2007.
- 박경수·김순진, 「식민지기 만주정책과 국책문학에서의 明暗의 表象」, 《일본어문학》 제35집, 2007.
- 박경수, 「격동기 작가 정인택의 사상변화와 방향전환」, 《일본어문학》 제40집, 2009.
-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한국어문학회, 《어문학》 제86집, 2004.
- 오병기, 「1930년대 심리소설과 자의식의 변모 양상」, 《대구어문논총》 제11집, 1993.
- 유성하, 「1930년대 한국심리소설 기법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87.
- 윤정아, 「일제 말기 소설의 대일 협력 양상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2008.
- 이강연, 「1930년대 심리소설의 전개」, 《대구어문논총》 제3집, 1985.
- \_\_\_\_\_,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1987.
- \_\_\_\_\_, 「한국 모더니즘 소설의 형성과 그 배경」, 《대구어문총론》 제8집, 1990.
- 이경훈, 「이상과 정인택 1」, 『작가연구』, 새미, 1997.
- \_\_\_\_\_, 「이상과 정인택 2」, 《현대문학의 연구》 제13집, 1999.
- 이상욱,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에 나타난 자의식 과잉」, 경북대 박사논문, 1986.
- 이영아, 「정인택의 삶과 문학 재조명-이상 콤플렉스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 소설연구》 제35집, 2007.
- 이종화, 「정인택 심리소설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993.
- \_\_\_\_\_,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1994.

- 이혜진, 「총력전 체제하의 정인택 문학의 좌표」,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제29집, 2008년 하반기.
- 이 호, 「한국 현대 심리소설의 반복 구조 연구-1930년대 심리소설을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1999.
- 田村 巢章(Tamura Hideaki), 「清凉里·〈前近代〉の超克」, 《일본어문학》 제40집, 2009.
- 조남현, 「정인택론-시대와 역사에의 의문부호」, 『북으로 간 작가선집』, 을유문화사, 1988.
- 조진기, 「내선일체의 실천과 내선결혼소설」, 《한민족어문학》 제50집, 2007.
- 최상윤, 「한국 자의식 소설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1981.
- 최혜실, 「1930년대 한국 심리소설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6.
- \_\_\_\_\_,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한국문학의재발견-작고문인선집

## 정인택 작품집

지은이 | 정인택  
번역자 | 이해진  
기획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펴낸이 | 양숙진

초판 1쇄 펴낸날 | 2010년 1월 25일

펴낸곳 | (주)현대문학  
등록번호 | 제1-452호  
주소 | 137-90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41-10  
전화 | 516-3770  
팩스 | 516-5433  
홈페이지 [www.hdmh.co.kr](http://www.hdmh.co.kr)

© 2010, 현대문학

값 12,000원

ISBN 978-89-7275-534-0 04810  
ISBN 978-89-7275-513-5 (세트)

“선전기관에서 제휴하고 있는 사람과 또 보국대 등 징용과 닮은 방법으로 봉입하는 노무자를 취급하는 사업주가 그 책임의 일단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징용에 대한 인식을 교정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다.

해방 후, 1945년 10월 『자유신문』을 창간하고 발행인과 부사장을 지냈다. 같은 해 12월에 대한독립애국금헌성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후 조선문필가협회 위원, 민주국민당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1948년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았다. 1950년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京城日報』 1945.6.9, 6.11; 『每日申報·每日新報』 1930.2.13, 1943.11.8, 11.14, 11.15, 11.16, 11.17, 11.18, 11.19, 1945.2.17, 6.9, 6.12, 6.22, 7.19; 『國民總力』 1944년 5월호; 『新聞總覽』(1928.6.1930.2, 1933.4~1943.12); 『朝鮮年鑑』(1942, 1944, 1945); 『朝鮮臨戰報國團概要』(1941.10); 『國民總力運動要覽』(1943.10); 『國民總力朝鮮聯盟役員名簿』(1944.6); 『反民特委調査記録(鄭寅翼篇)』; 『東洋大學一覽(大正14年度)』(1925.12); 『第十四版 大衆人事錄(朝鮮)』(1943.11); 『民族正氣의 審判』(1949.4); 『親日派群像』(1949.11); 『記者半世紀』(1969); 『新聞百年人物事典』(1988.12); 『韓國言論人物史話(8·15前篇 下)』(1992.12);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2005.5)

정인채 鄭寅棨 | 생물년 미상

만주 보민회 회원

만주 보민회(保民會)에서 활동했다. 만주 보민회는 만주 지역에서 항일세력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선인 사회통제를 목적으로 1920년 결성되어 1924년까지 존속한 친일단체다. 회원들은 제우교(濟愚敎)를 신앙으로 삼았다. 1924년 보민회 해산 당시 보민회 설립과 운영의 공로를 인정받아 배당금으로 30원을 받았다.

[참고문헌]

『朝鮮人二對スル施政關係雜件- 保民會』 第二卷, 第三卷

정인택<sup>1</sup> 鄭隣澤 | 小松幹, 1907~?

군수

1907년 11월 5일 충청남도 천안에서 태어났다. 경성

제일고등보통학교를 마치고 1926년 4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해 1928년 3월 수료한 후, 같은 해 4월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철학과에 입학해 1931년 3월 졸업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 충청남도 공주공립고등보통학교 교유로 근무했다. 1938년 충청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에 임명되었으며,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충청남도 내무부 학무과 시학으로서 속을 겸했다. 1942년 충청남도 보령군 속으로 발령받아 권업과장과 내무과장을 맡았다. 1944년 4월 군수로 승진해 충청남도 당진군수로 부임해 해방될 때까지 재직했다.

해방 후 미군정하에서 충청남도 인사처 고시과장 겸 서무과장을 맡았고, 1947년 대전공립중학교 교장을 맡았다. 1949년 5월 충청북도 학무국장(서기관)에 임명되었고, 1950년 6월 충청북도 문교사회국장, 1951년 10월 전라북도 내무국장을 맡았다. 1952년 충청남도 학무국장, 1953년 경상남도 내무국장, 1957년 경기도 내무국장을 거쳐 1958년 7월 충청북도지사에 올라 1960년 4월까지 재직했다. 1961년 9월 ‘혁명재판소’에서 3·15부정선거와 관련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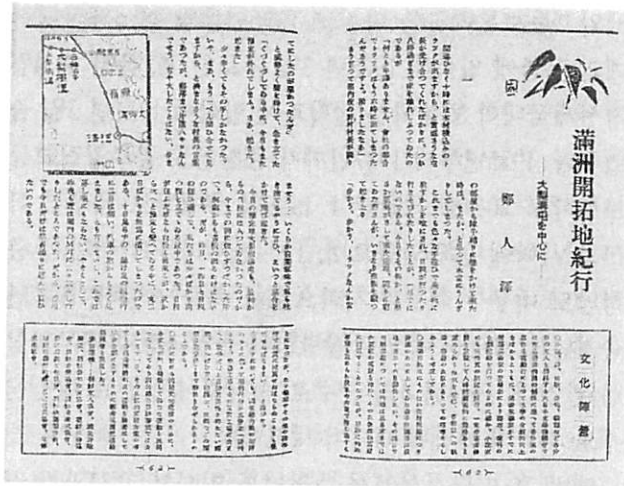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東亞日報』 1958.7.31, 1961.9.28; 『京鄉新聞』 1961.9.28; 『大韓民國人事錄』(1949.12); 『大韓民國建國十年誌』(1956.5); 『大韓民國行政幹部全貌』(1960.3); 『大韓年鑑 4288年版』(1955); 『韓國名士大鑑 第2輯』(1959.11); 『1962年版 現代朝鮮人名辭典』(1962.9); 『(京城帝國大學同窓會)會員名簿』(1975.2); 『大韓民國歷代三府要人總鑑』(1993.10)

정인택<sup>2</sup> 鄭人澤 | 1909~1953

소설가·기자



1909년 9월 12일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정태양(鄭太陽)이었으나 1930년경에 정인택으로 개명했다. 아버지는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주필을 지낸 정운복(鄭雲復)이다. 1922년 3월 수하동(水下洞)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해 1927년 3월 졸업했다. 1928년 4



「만주 개척지 기행」 『국민문학』 1943년 3월

월 경성제국대학 예과 문과에 입학했다가 중퇴했다. 1930년 1월 『중외일보』 현상공모에 단편 「준비」가 2등으로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1931년부터 일본 도쿄(東京)에서 생활했으며, 1934년 중반 귀국한 후 『매일신보』 정치부 기자로 입사했다가 얼마 안 있어 학예부로 옮겼다. 1939년 5월 『매일신보』 학예부를 그만두고 『문장』지 기자로 전직했다. 1940년 10월 『문장』지를 퇴사하고 다시 『매일신보』 학예부 기자로 옮겨 해방될 때까지 재직했다.

1941년 7월 조선문인협회가 주최하는 ‘용산 호국신사 어조영지(御造營地) 근로봉사’에 참가했다. 11월 조선문인협회 주최로 아서원에서 열린 내선(內鮮)작가간담회에 참석해 ‘국민문학’ 건설에 대해 논의했다. 12월 경성방송국 제2방송부(조선어 방송부)에 출연해 시국적 작품을 낭독했다. 1942년 6월부터 ‘약 20일간 만주 개척민 부락을 시찰하고 거기서 느낀 바, 본 바를 작품화하여 국민문학의 새 경지를 개척케 하자’는 뜻에서 조선총독부 사정국(司政局) 척무과(拓務課) 촉탁 자격으로 장혁주·유치진과 함께 만주에 파견되었다. 돌아와서 1942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한 ‘대지의 역사’에서 1939년 12월 발표된 ‘만주개척정책의 기본요강’ 덕분에 조선인 개척민도 일본인 개척민과 동등하게 취급되어 각종 편의를 받게 되었다고 선전했다.

1942년 9월호 『신시대』에 발표한 ‘옥토의 표정’에서 “국토개척의 선사(選士)가 되려면 첫째로 근로정신의 존중이 필수조건이다. 즉 모든 곤고결핍(困苦缺乏)을 극복하고 자가근로에 의하여 흥아(興亞)의 초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왕성한 개척정신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주개척민사업이란 팔공일우(八紘一宇)의 정신으로 일관되어야 하는 성업(聖業)이다. 민족협화의 중핵으로 고도의 생활양식을 만주의 기후와 풍토에 맞게 새로이 창조하는 동시에 원주민을 지도하여 신흥 농촌문화를 건설할 책임을 짊어졌다.”고 조선 이주민에게 당부하면서 자부심을 유도했다.

만주 이민을 소재로 한 소설들을 통해 이러한 주장을 더 구체화했다. 1942년 11월호 『조광』에 발표한 「검은 흙과 흰 얼굴」에서는 만주 개척민 부락에서 선구적 지식인이 맡아야 할 역할을 이야기했다. 작가의 분신적인 주인공 철수는 만주 개척민 부락을 시찰하다 칭찬이 자자한 현대풍의 여교사 마쓰바라(松原)를 발견한다. 철수는 그 여교사가 과거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 혜옥과 매우 닮았음을 느낀다. 사랑했지만 물욕에 눈이 먼 혜옥의 어머니 때문에 관계도 그르치고, 또 좋지 못한 소문까지 연어 종적을 감춘 혜옥을 떠올리게 하는 그 신여성은 부락을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고 있었다. 감동을 받은 그는 구태여 그 여자가 혜옥임을 확인하려 들지 않고 그저 ‘근대 젊은 여성의 훌륭한 모습’을 발견한 것으로 만족한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허영과 물욕’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 젊은이들이 구태를 청산하고 개척민 부락으로 이주해 헌신할 것을 촉구했다. 1942년 11월호 『국민문학』에 발표한 「농무(濃霧)」는 지식인이 아니라 농민의 아들을 주인공으로 했다. 조선인 트럭운전수 센다(千田)는 만주사변이 일어나자 북쪽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친다. 어느 날 비적을 토벌하다 부상당한 센다는 군(軍)과 만주척식회사의 도움으로 안투현(安圖縣)에 일자리를 얻게 되는데 우연히 현의 개척민 명부에서 자기 가족과 아버지도 현내(縣內)로 왔다는 걸 알게 된다. 하지만 비적 토벌에 바빠 미처 가족을 찾아볼 겨를이 없었던 센다는 어느 날 새벽, 가족이 머물고 있음직한 마을에서 연기가 오르자 비적을 토벌하여 가족과 마을 사람을 구할 셈으로 토벌대를 태운 트럭을 전속력으로 몰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환경을 통해 스스로 깨쳐 나가는 조선 이주민의 모습을 그렸다. 마지막에 센다는 “언제까지나 가난한 농민으로 지낼 것인가. 만주에는 얼마든지 넓고 비옥한 토지가 있다. 그것을 개척하고, 그것을 경작해 ……”라고

생각하며 “새들도 지나가지 않는 높고 높은 산서성(山西) 산꼭대기의 적진을 일루(一壘) 또 일루 초인적인 의지로 무찔러 가는 황군 용사들의 신 같은 자태”를 의식하며 트럭을 탄 채 적진에 뛰어든다.

이외에도 『경성일보』를 통해 「하얼빈에서」(哈爾濱にて, 1942.6.18), 「천진에서」(千振にて, 1942.6.23), 「모란강에서」(牡丹江にて, 1942.6.25), 「연길에서」(延吉にて, 1942.6.30) 등과 같은 여행스케치를 발표했고, 「여신초」(旅信抄, 『국민문학』 1942년 7월호), 「개척민의 감정」(開拓民の感情, 『춘추』 1942년 8월호) 등과 같은 산문도 내놓았다.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 관계 좌담회를 가진 뒤, 「만주개척민시찰보고」(『녹기』 1942년 8월호), 「개척농민시찰좌담회」(『신시대』 1942년 9월호), 「개척민부락장현지좌담회」(『조광』 1942년 10월호)라는 제목으로 결과물을 발표했다.

1942년 9월 조선총독부 외곽단체인 조선문인협회의 관사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26일부터 1943년 1월까지 만주국 젠다오성(間島省)이 초빙하고 조선문인협회가 파견하는 형식으로 채만식·이석훈·이무영·정비석과 함께 젠다오성 조선인 개척촌을 시찰했다. 시찰을 다녀온 뒤 가진 좌담회에서, 만주 이민의 황국신민화가 물질적으로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신적 수련을 할 시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현재의 분촌(分村) 계획이 잘 실행되어 생활이 향상되면 이주민들의 황국신민화도 확고하게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간도성시찰작가단보고」, 『녹기』 1943년 2월호). 그리고 1943년 4월 「반도의 빛」(半島の光)에 발표한 산문 「낙토에 충천하는 개척민의 의기」에서 자기들이 먹을 식량의 경작을 포기하더라도 ‘국가’가 요구하는 (군수물자로서의) 콩이나 대마 같은 것을 다량 심고 또 출하해 온 만주 이주민들의 의기를 칭찬하면서 그들을 제일선의 용사에, 반도 민들을 총후 국민에 비유했다. 이외에도 「만주 개척지 개행」(『국민문학』 1943년 3월호) 같은 산문을 썼다.

1943년 4월 조선문인보국회 주최로 반도호텔에서 열린 일본인 남방종군작가 이노우에 고분(井上康文)과 우에다 히로시(上田廣) 환영교환회에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해 5월 일본 작가 가토 다케오(加藤武雄) 등 5명을 맞아 조선문인보국회가 경성 옥정(旭町)의 천장

(川長)에서 마련한 내선작가교환회에 참석했다. 6월 4일 체신회관에서 열린 일본 작가 가토 다케오 일행을 중심으로 한 ‘전선(全鮮)시찰종합좌담회’에 조선문인보국회 일원으로 출석했다. 같은 달 13일 조선문인보국회 소설회곡부회 간사를 맡았다. 8월 4일 징병제 감사결의 선양 행사에 협찬해 경성 부민관에서 개최된 ‘낭독과 연극의 밤’에 정인택이 지은 네거리소설(辻小説: 국민의 전쟁의 지를 고취하기 위해 짧은 글을 거리에 게시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가두소설’이라고도 한다)인 「불초의 자식들」(不肖の子ら)이 영화배우 남승민(南承民)에 의해 낭독되었다. 무지한 조선의 어머니가 ‘내지’의 어머니와도 같이 ‘군국(軍國)의 어머니’로 변해가는 모습을 그린 「불초의 자식들」(『조광』 1943년 9월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극악했던 장남이 불과 6개월의 조련으로 몰라볼 만큼 능글하고 단정한 젊은이가 되어 돌아왔을 때 나이 든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지원병 훈련소란 얼마나 편리한 곳이라나. 다음 자식도 그 다음 자식도 꼭 그곳에 넣어 달랑게.’ 나중의 두 자식도 형에게 뒤지지 않는 녀석들로 이 불초의 자식들 때문에 나이 많은 모친의 고생은 끊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중의 두 사람은 지원병이 되지 않아도 좋았다. 반도에도 영예의 징병제가 펼쳐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불구가 아닌 한 반도의 젊은이들도 국가의 간성이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때쯤 나이 많은 모친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군대에 보내는 것을, 감화원에라도 넣으려고 하는 것쯤으로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모친은 셋 모두 하나같이 변변치 못한 자식을 나라에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몸의 능력 부족과 불운을 마음속으로부터 한탄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한 모친의 마음속에, 이 변화를 가져오게 된 사연이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1943년 8월 5일 ‘결전하 반도문화 진영의 지도자층을 연성’하기 위해 국민총력조선연맹 주최로 외금강에서 마련된 문화부문 관계자 미소기(みそぎ·禊: 神道の齋戒의식)연성회에 참석했다. 9월 제4회 항공일 특집 ‘항공의 밤’ 라디오 방송에서 「이야기 무산옹(武山隆) 대위」를 발표했다. 본명이 최명하(崔鳴夏)인 다케야마(武山) 대위는 최초의 조선인 육군비행장교로서 수마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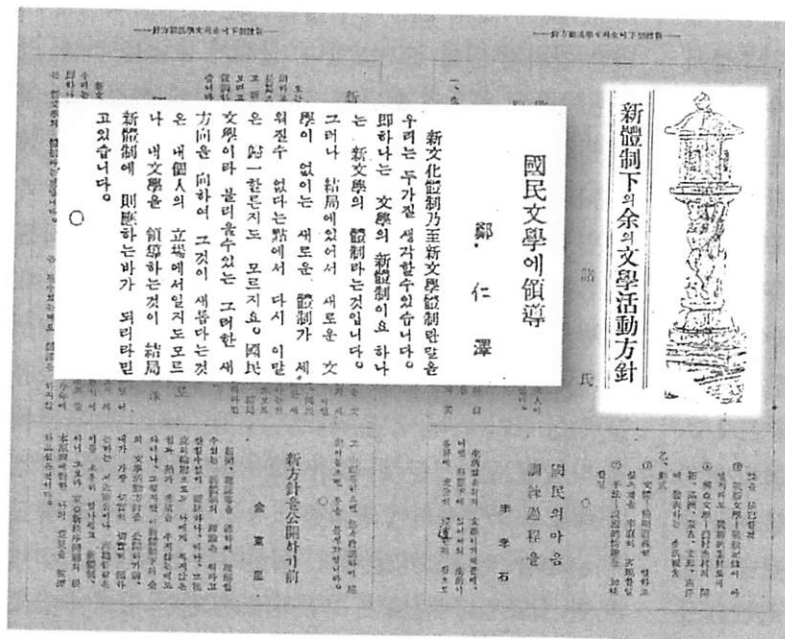
의 파칸발 비행장을 공격하다 전사했다. 11월부터 이듬해인 1944년 1월까지 '국체본위(國體本位)'에 철저히하여 적의 모략을 파쇄하고 국민의 사기를 높이는, 건전하고 생활의 지도력이 큰 작품을 발굴·보급하기 위해 조선문인보국회가 주관한 '결전소설과 희곡' 현상모집의 심사원으로 활동했다. 1944년 2월 '해군 위안의 밤' 라디오 방송에서 방송소설 「바다의 사람들」을 발표했다. 6월과 8월 사이에 『반도의 육독(陸禿 : 독수리) 무산(武山) 대위』를 발표했다(현재 이 소설은 전해지지 않는다). 8월 28일 조선군 보도대(報道隊) 보도연습에 참가했다. 12월 일본어 소설집 『청량리 일대(靑凉里界限)』를 발간했다. 이 소설집과 『반도의 육독 무산 대위』로 1945년 3월 22일 조선총독부가 주관하는 쇼와 19년도(1944년) 제3회 국어문예총독상을 받았다. 상을 받은 후 3월 하순에 동경흥생회(東京興生會) 초대로 약 20일간 일본을 시찰하는 한편, '재일조선응징사(在日朝鮮應徵士)'를 위문하고 귀국한 뒤 4월 22일 『매일신보』와 가진 회견에서 철저한 공습대비로 적 격멸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생사초월, 인정의 꽃」). 1945년 8월 조선문인보국회 소설부회 간사장을 맡았다.

1941년 1월호 『삼천리』에 「국민문학에 영도(領導)」를 발표하면서부터 일제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했다. 「신체제하의 여(余)의 문학활동 방침」이라는 큰 제목 아래 실

린 여러 문인의 글 가운데 하나인 이 글에서 그는 “신문 화체제 내지 신문학체제란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는 문학의 신체제요 하나는 신문학의 체제”라고 하면서 일제에 봉사하는 ‘국민문학’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의했다. 1942년 3월호 『반도의 빛』에 발표한 「엄숙한 의무」에서 “전쟁은 항상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내어 왔습니다. 전쟁은 한 개의 위대한 탈피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 그 위대한 탈피를 경험하고 신문화 건설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고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실로 엄숙하고도 영광스런 의무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대 문화인의 유일의 금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불타는 국민적인 것의 열정’을 억제할 길이 없다는 식으로 흥분을 금치 못했다. 나아가 이러한 열정은 ‘황민적인 자각’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의도적인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작가의 마음가짐·기타」(作家の心構へ・その他, 『국민문학』 1942년 4월호)에서는 일본 작가들은 일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생리적으로 국민적인 것, 황민적인 자각에 이르게 되나 조선 작가들은 “궁극의 목표를, 이러한 생리적인 문제에게까지 높여두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것에 향하여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의식이 거기까지 승화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문학에 국민적인 자각이 짜 넣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민문학을 부르짖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메아리

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 작가가 일본적인 감성과 혼을 생리적으로 내면화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황민적인 자각을 이루어 진정한 ‘일본인’으로 재탄생한 선구자로서의 문학인 또는 지식인은 끊임없이 민중을 계몽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청량리 일대」 『국민문학』 1941년 11월호)에서 제시한 지식인상은 바로 그 전형이다. 이 글에서 지식인 부부가 경성의 변두리 빈민가인 청량리에 이사 와서 점차 주민과 동화해 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애초 이기적이었던 아내가 애국반장을 맡아 주민을 계몽해 가는 과



정인택이 일제에 적극 협력하기 시작한 산문, 「국민문학에 영도」 『삼천리』 1941년 1월

정신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아내는 거의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왔다. 어떤 때는 권태가 늦은 나보다 더 늦는 경우도 있었다. 청량리에서 늘 회람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글을 읽을 수 없는 집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동네 회의의 지시사항은 물론 모든 것을 아내가 입으로 설명하여 전달하였다. 가정의 소방훈련을 주로 하는 방공훈련이 다가와 지시사항도 많아졌으며 방공 자재의 준비 하나만도 일일이 지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아내 혼자 힘으로는 벅찬 일이었다. 상대가 가난한 사람들이어서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국민방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도 일의 진행을 어렵게 했다.”

주인공과 아내는 어느덧 주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전신하 애국반의 모범을 이루어 내는데, 여기서 ‘주인공’ 부부와 주민’ 관계는 ‘식민 본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 관계의 축소판이다.

1943년 10월호 『국민문학』에 발표된 서간체 소설 「뒤돌아보지 않으리」(かへりみはせじ)에서 지원병으로 나선 주인공은 ‘총후’의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인침(千人針 : 센넌바리)를 가르치시고, 신사참배를 가르치시고, 앞장서서 일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걸로 족합니다. …… 어머니는 마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북돋아 주십시오. 그리고 겐(賢)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제 몫을 하는 군인으로 키워 주십시오. 그것만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라고 당부한다.

“아들에서 어머니로, 다시 어머니에서 마을 사람들로 이어지는 계몽의 연쇄반응은 전후방이 따로 없는 총동원체제를 움직여 갈 수 있는 힘이다. 주인공인 ‘나’가 전쟁터에서 어머니와 동생 겐에게 보내는 서간체 형식으로 된 이 단편소설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는 부락의 갱생에 전력을 다하고 죽었다. 그 유업을 잇기 위해 고등농림학교에 들어갔던 ‘나’는 수학 도중 지원병으로 입대한다. ‘나’는 부모 앞서 죽는 게 불효라지만 지금 전시에는 오히려 부모에 앞서 전사하는 게 효도라고 말한다. 동생 겐에게는 기쁘게도 징병제 실시로 언젠까 ‘영광스러운 초대’가 올 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전사할 때가 되었다면서 ‘천황’을 위한 영광

스러운 죽음을 노래한 군국가요 「유미유카바」(海ゆかば·바다에 가면)를 비장한 심정으로 노래한다. 소설 제목인 「뒤돌아보지 않으리」는 바로 이 노래의 마지막 구절이다.

학병·지원병·징병을 선전 선동하는 소설도 많이 발표했다. 1942년 1월호 『춘추』에 발표한 소설 「행복」에서 주인공 김노인의 사생아는 ‘지원병’이 되기 위해 김노인 호적에 입적해 주길 부탁하고, 1942년 1월호 『녹기』에 발표한 소설 「껍질(殼)」에서 주인공 학주의 동생 용주는 지원병이 되기 위해 구세대 아버지의 ‘단단한 껍질’과 싸워 나간다. 1943년 12월호 『춘추』에 발표한 소설 「해변」에서 동네의 골칫거리였던 개망나니 덕모는 어부인 아버지의 운명 소식을 듣고 귀향하게 된 것을 계기로 모범청년으로 변신한다. 일을 하면서도 늘 바다에의 열정을 삭이지 못하던 덕모는 어느 날 해군지원병제가 실시되자 이 길로 뛰어들 것을 결심한다. 1944년 12월에 발간된 작품집 『청량리 일대』에 실린 「아름다운 이야기」(美しい話)에서 조선인 주인공은 업무차 도쿄에 왔다가 10년 전 하숙했던 ‘시모무라(下村) 덕’의 내력을 우연히 선배에게서 듣는다. 그 집안의 오시노 할머니는 우에노전쟁(上野戦争 : 1868년 도쿄 우에노에서 벌어진 막부군과 메이지 정부군 사이의 싸움)에서 남편을, 러일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은 채 두 며느리와 함께 꾀갓하게 살아왔다. 소설은 선배와 주인공이 이제 조선에서도 징병제가 포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고가 되겠다며 웃는 것으로 끝난다. 같은 작품집에 실린 「각서(覺書)」에서 주인공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에 경성제대 법과생이 되었는데, 마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각서’를 쓰고 학도병에 자원했다. 반대할 줄 알았던 어머니마저 적극 권하자 주인공은 설레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황은(皇恩)에 보답할 때’라는 걸 깨닫는다.

조선인 다케야마 대위의 전사는 ‘목숨을 다 바쳐 황은에 보답하자’는 선동의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무산 대위의 일들」(武山大尉のことども, 『조선』 1944년 2월호 ; 『국민총력』 1944년 9월호), 「봉익」(鵬翼, 『조광』 1944년 6월호) 등이 그것이다. 「무산 대위의 일들」에서 “무산 대위를 생각할 때, 나는 언제나 옛 무사를 연상한다. // 적



속에서 조용히 자결한 그 장렬한 최후뿐만 아니라, 무용(武勇)을 숭상하고 체면을 중히 여기고 애오라지 대의를 위하여 살아나온 진솔됨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상찬하는데, 사실 작가가 다케야마를 내세우는 저의는 “반도의 청소년들은 왜곡된 오랜 동안의 풍습에서, 자칫하면 문약에 기울기 쉬우나, 그것을 이어 받은 피는 결코 본질적으로 그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상무(尙武)의 기백에 가득 찬 터일 것이다. 나는 그 구현을 무산 대위의 생애에서 찾아낸 것이다. // 징병제의 실시를 보게 된 오늘날의 반도에서 잠류(潛流)하고 있는 이러한 상무의 기풍을 불러 깨우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항인 것이다. 다케야마 대위는 25년의 짧은 한평생을 바쳐서 잘도 그 도표(導標)가 된 선도자”라고 말하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조선』에 실린 산문에서 “나는 무산 대위를 완벽하게 그림으로써 반도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이정표를 주며, 황민으로서의 자각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한 번 죽어서 나라에 보답하는 남아의 기개를 고취하고 싶다는 염원이었다.”고 고백했다. 『봉익』에서 소설로 형상화한 다케야마의 상무정신은 그가 밀림에 불시착하여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였을 때 떠올렸던 다음과 같은 생각에서도 잘 드러난다.

“자아 인젠 죽을 때가 왔다. 남 부끄러운 죽음을 말아라. 황국의 신민답게 네 최후를 찬란하게 장식해서 이 고장 원주민들의 머릿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 놓아라. 그 뿐이냐, 너는 반도 청소년의 선각자로서 가장 군인다운 죽음을 하게 되었다. 네 뒤에서 징병제를 목표로 수없는 반도 청소년이 군문(軍門)을 향하여 달리고 있다는 것을 최후의 일순(一瞬)까지도 잊지를 말아라. ....”

1945년 6월 『조광』 5·6월 합병호에 발표한 추모글인 「히틀러전초(傳抄)」에서 히틀러에 대해 “한평생 조국 독립을 위하여 싸우라는 운명을 짊어지고 태어난 영웅”이라 추켜세웠고, 그의 싸움은 “세계 신질서 건설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추모했다.

이 밖에도 다수의 친일 관련 글을 남겼다. 「청량리 일대」(『매일신보』 1937.6.26~7.2), 「신이상의 수립」(『매일신보』 1940.2.16), 「축 흥아유신」(『매일신보』 1941.1.9), 「향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국민문학』 1942년 1월호), 「색상자」(『국민문학』 1942년 4월호), 「새로운 반도



『대지의 역사』 『매일신보』 1942년 7월 27일

문학의 구상」(『녹기』 1942년 4월호), 「만년기」(『동양지광』 1942년 5월호), 「조선에서 징병제 실시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각 방면에서 듣는다」(『내선일체』 1942년 6월호), 「만주행 전기(前記)」(『대동아』 1942년 7월호), 「대지의 역사」(『매일신보』 1942.7.27~7.29), 「개척민의 감정」(『춘추』 1942년 8월호), 「만주개척지기행」(『국민문학』 1943년 3월호), 「한 톨의 씨앗」(『신여성』 1942년 12월호), 「참새를 굶다」(『문화조선』 1943년 1월호), 「낙타산에서」(『경성일보』 1943.1.7), 「조용한 폭풍 연맹상 작품과 그 작가」(『경성일보』 1943.3.27~28), 「동창(東窓)」(『조광』 1943년 7월호), 「미소기연성행」(『靛鍊成行』 『신시대』 1943년 9월호), 「싸우는 기관구」(『문화조선』 1943년 10월호), 「문화인의 연성」(『녹기』 1943년 10월호), 「건설」(『반도의 빛』 1943년 10월~1944년 7월호), 「나무의 일생」·「청향구(�淸香區)」(『방송소설명작선』, 1943), 「무산 대위」(『국민총력』 1944.1.15), 「애정」(『반도작가단편집』, 1944), 「푸른 언덕」(『방송지우』 1944년 5월호), 「개나리(連翹)」(『문화조선』

1944년 6월호), 「갑종합격」(『문화조선』 1944년 12월호), 「세키 대위의 얼굴」(『국민총력』 1945.1.1 · 1.15 합병호), 「태피호」(『경성일보』 1945.4.29) 등이 있다.

해방이 되자 일부 좌경화된 경향을 내보이며 작품활동과 언론활동을 재개했다. 대한독립협회 기관지격인 증보회의 경향의 「대한독립신문」(2월 15일 『民報』로 개제)에 필화사건으로 휴간했다가 1947년 1월 28일 속간될 때 편집국장을 맡았다. 같은 해 8월 30일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맡았다. 1948년 10월 소설집 『연련기(戀戀記)』(금룡도서)를 발간했다. 1949년 동지사(同志社)에서 근무하면서 동화집 『난쟁이 세 사람』을 발간했다. 같은 해 4월 10월 반민특위에서 발표한 ‘미체포 반민자 리스트’ 중 ‘제3부(문화부)’ 명단에 포함되었다. 반민특위는 이 발표를 통해 “정치사상 관계, 당연범, 문화방면에 걸친 미체포 혹은 미취급 반민자 27명에게 오는 24일까지 특위원부에 자수하여 오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자수하는 자에게는 정상을 참작할 것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이인(李仁) 위원장은 이미 ‘이번 미체포 반민자의 발표로써 실질적으로 중앙특위의 피의자 체포는 중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 정인택이 체포된 기록은 없다. 다만 같은 해에 정인택이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사과 내용이 일제강점기의 친일 경력과 해방기의 좌익 경력 중 어느 부분까지를 의미하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12월 5일 남한 정부가 주도한 종합예술제 행사의 하나로 ‘이복 문화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발표할 때, 그 일환으로 『서울신문』 지면에 『북조선문화예술총동맹에게 경고』라는 글을 발표했다. 1950년 보도연맹에서 근무했다. 6·25전쟁 중 가족과 월북한 뒤 1953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 【참고문헌】

『朝鮮總督府官報』; 『中外日報』 1930.1.11~16; 『每日申報每日新報』 1928.4.1, 1930.9.11, 1937.6.26~7.2, 1940.2.16, 1941.1.9, 11.16, 1942.5.27, 5.28, 5.29, 7.27, 7.28, 7.29, 9.10, 12.27, 12.29, 1943.8.1, 10.28, 1945.3.24, 8.3; 『京城日報』 1941.11.15, 12.18, 1942.6.18, 6.23, 6.25, 6.30, 12.27, 1943.1.7, 3.27, 3.28, 6.13, 7.30, 8.4, 8.5, 9.20, 1944.2.20, 1945.4.29; 『京鄉新聞』 1947.1.28, 1949.8.20; 『中央新聞』 1947.8.31; 『서울신문』 1949.12.5; 『文章』 제1권 제11호(1939.12), 제2권 제1호(1940.1); 『朝光』 제8권 제10호(1942.10), 제8권 제11호(1942.11), 제9권 제7호(1943.7), 제9권 제9호(1943.9), 제10권 제6호(1944.6), 1945년 5·6월 합병호; 『春秋』 제2권 제2호(1941.3), 제3권

제1호(1942.1), 1942년 4월호, 1942년 8월호, 1942년 10월호, 제4권 제11호(1943.12); 『綠旗』 제7권 제1호(1942.1), 1942년 4월호, 1942년 8월호, 제8권 제2호(1943.2), 1943년 10월호; 『國民文學』 창간호(1941.11), 제2권 제1호(1942.1), 제2권 제4호(1942.4), 1942년 7월호, 제2권 제9호(1942.11), 제3권 제3호(1943.3), 제3권 제6호(1943.6), 제3권 제7호(1943.7), 제3권 제9호(1943.9), 제3권 제10호(1943.10), 제4권 제9호(1944.9), 제4권 제12호(1944.12); 『內鮮一體』 제3권 제6호(1942.6); 『國民總力』 1944년 1월 15일호, 9월 15일호, 1945년 1월 15일호 합병호; 『朝鮮』 제345호(1944.2); 『三千里』 제13권 제1호(1941.1), 제13권 제9호(1941.9); 『大東亞』 제14권 제5호(1942.7); 『半島の光』 제52호(1942.3), 제64호(1943.4), 제70호(1943.10)~제78호(1944.7); 『東洋之光』 제4권 제5호(1942.5), 1944년 6월호; 『新時代』 제2권 제9호(1942.9), 제3권 제9호(1943.9); 『文藝』 1950년 2월호; 『新女性』 1942년 12월호; 『文化朝鮮』 1943년 1월호, 1943년 10월호, 1944년 6월호, 1944년 12월호; 『放送之友』 1944년 5월호; 『昭和3年京城帝國大學豫科一覽』(1928); 『京城帝國大學』(1980.3); 『韓國近代文人大事典』(1990.7); 『나무의 일생』 『청향구(淸鄕區)』(『放送小說名作選』, 1943.12); 『애정』(『半島作家短篇集』, 1944); 『清涼里界限』(1944.12); 『戀戀記』(1948.10)

## 정인하 鄭寅夏 | 생물년 미상 경부

전라북도 출신이다. 1907년 전라북도관찰도 전주경찰서 경부에 임명되었고, 1908년 1월 남원경찰서로 옮겨 근무했다. 같은 해 4월 의병으로 가장해서 남원군에 출현한 의병 3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무기를 빼앗았다. 1908년 7월 전라북도관찰도 고부경찰서 경부로 옮겨 근무하면서 호남지방의 의병을 집중적으로 ‘토벌’하기 위해 추진했던 ‘남한 폭도 대토벌작전’에 참가했다. 같은 해 8월 고부군에서 의병 1명을 살해하고 김옥화(金玉化)를 생포했으며, 9월에는 김영식(金永植)을 체포했다. 또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의병 수색을 위해 고부·부안·정읍 등지로 출장가서 김원중(金元仲)의병부대의 한금철(韓今哲)·송화수(宋化須), 김공삼(金公三)의병부대의 안행팔(安幸八)·김영백 등 5명을 체포하는 등 의병 ‘토벌’에 힘썼다.

합병 후, 1910년부터 1911년까지 경상남도 부산경찰서 경부를 지내다 1912년 경상북도 안동경찰서 경부로 옮겨 1914년까지 근무했다. 1912년 8월 한국병합기념장을, 1915년 11월 다이쇼(大正)천황 즉위기념 대례기념장을 받았다. 1915년 전라북도 줄포경찰서 경부를 거쳐

친일문제연구총서 인명편 3

# 친일인명사전

초판인쇄 2009년 11월 3일

초판발행 2009년 11월 6일

펴낸곳 민족문제연구소

제작공급 민연(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전화 02-969-0226 / 팩스 02-965-8879

www.historybank.net

등록번호 제8-860호

인쇄 삼화인쇄주식회사

정가 1질(전3권) 300,000원



9 788993 741056

ISBN 978-89-93741-05-6(제3권)

ISBN 978-89-93741-02-5(전3권)

© 민연, 2009

편저자의 허락 없이 이 책의 내용을 전재 또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 만든 사람들

제호제자 신영복

편집 신명식 손기순 김태숙 신승준

디자인자문 (주)디자인내일

교정 송숙희 김선미 정달준 이영선

사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자료실